

新羅 鎧子 試論

張 允 禎

Chang, Yoonjung
東아시아文物研究所 研究員

I. 머리말

신라와 가야의 空間的 範圍는 三國遺事 5가야조의 위치 비정을 그대로 수용해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들 新羅考古學은 대부분 문헌사료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경주지역의 고분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신라 영역을 고고학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워 신라의 수도인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경주이외의 지역이 가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낙동강을 경계로 그 東岸과 西岸지역에 보이는 지역적 특색을 木心系 鎧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고고학 자료는 과거의 인간 집단이나 사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 자료가 나타내는 정형성을 해석해 내는 데는 귀납적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정한 해석의 틀, 이른바 모델(model)을 통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고학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모델을 구성할 때 文獻에서 유력시되는 歷史像을 주요 바탕으로 삼고 그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모델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그를 통한 생생한 역사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¹⁾

이것은 신라와 가야 以前, 즉, 전·변한도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두 지역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공통된 문화에서 출발한 두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해석하는 데는 文獻史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두 지역의 문화가 갑자기 서로 다른 문화로 돌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기 새로

1) 모델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Robert J. Sharer and W. Ashmore, *Archaeology: Discovering Our Past*(Mayfield, 2nd ed., 1993)을, 고고학적인 모델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는 Evzen Neustupny, *Archaeological Method*(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2) 李熙津,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人學院 博士學位論文, 1998.

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場所, 速度, 그리고 物量面에서의 차이가 두 지역 문화의 특색을 이루지 않았는가 추정된다.

文獻史的 접근과 함께 고고학적 해석에서의 접근방법은 遺構과 遺物의 관찰에서 비롯된다. 遺物은 형태, 제작방법, 분포영역 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같은 기능을 가진 형태 內에서 類型이 다른 것을 통해 시기와 지역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지역적 차이는 분포범위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분포범위는 유물이 가지는 이동성과도 관계가 있지만 제작집단과 더욱 밀접하다. 각 제작집단이 가지는 고유한 기술이 지역적 특색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작방법이 서로 다른 제작집단이 가지는 이른바 在地技術에 따른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시기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사건이 가미됨으로써 이 在地技術에 새로운 문화요소가 첨가되고 그에 따른 형태적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馬具의 한 요소인 鏡子라는 작은 매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木心系 鏡子の 제작방법 중에서도 外裝으로 사용되는 金屬板의 形態와 補強手法에 중점을 두어 형식을 분류하고 이들을 다시 낙동강 東岸과 西岸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적 특색을 설정코자 한다. 그리고 낙동강 東岸樣式으로 설정된 형식적 요소가 西岸지역의 양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研究史

鏡子は 말에 오를 때 디딤대로 사용되며 발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말의 출발이나 속력을 낼 때 鏡子에 걸친 발뒤꿈치로 말의 복부에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착장구이면서 제어하는 장구로도 사용된다.³⁾ 그리고 승마 중에는 신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鞍橋에 연결되어 있다. 형태는 발을 거는 부분이 輪으로 되어 있는 輪鏡과 발의 앞을 덮어씌운 壺鏡이 있고 구조는 輪鏡·壺鏡 모두 발을 디디는 踏受部와 鞍과 연결되는 鐙韁을 가지는 柄部로 되어 있다.⁴⁾

性別과 階級에 따라 材質的인 差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크게 木心製와

3) 李始永, 『韓國馬文化發達史』, 한국다사회, 1991.

4) 坂本美夫, 『馬具』, 考古學ライブラリ 34, ニュー・サイエンス社, 1985.

5) 『三國史記』 雜誌 第2 車騎條

眞符의 鞍橋는 紫檀·沈香을 금하고, 鞍韁은 罽織錦羅를 금하고 鞍坐子는 罽織錦을 금하

金屬製로 나눌 수 있다. 분류에 주로 사용되는 요소로는 柄部 길이, 輪部 형태, 踏受部 등이 있다. 흔히 사용되는 용어에는 長柄系・短柄系 鏡子, 혹은 古式・新式 鏡子 등이 있다. 그러나 각 연구자들이 공통된 요소를 사용하면서도 용어 조차 일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보다는 편년이라든지 특정민족의 이동에 따른 계보구축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병현⁶⁾은 新羅鏡子를 柄部가 짧고 두꺼운 短柄系와 길고 가는 長柄系로 나누었다. 長柄系는 木心과 鐵製로 나누고 木心은 다시 金屬板의 材質에 따라 木心鐵板被鏡子와 木心金銅板被鏡子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변천과정에서 柄部の 頭頂部가 둥근 것에서 직선적인 것으로, 그리고 柄部の 상단을 하단에 비해

고, 蹄泥는 靺鞨漆을 쓰고 銜 鏡은 金・鍍石・鍍金・綴玉을 금하고, 鞞靺는 組 및 紫條를 금하였다. 眞骨 女子의 鞍橋는 寶劍을 금하고, 안장언치(鞍轡)와 안장자리(鞍坐子)는 靺鞨를 금하고, 脊籠은 罽羅를 금하며, 재갈・鏡子에는 金으로 짜거나 玉으로 꿰는 것을 금하고, 고삐는 金銀絲로 묶어 짠 것을 금한다.

六頭品の 鞍橋는 紫壇・沈香과 黃楊・槐・栢(산팽나무)와 金銀・綴玉의 사용을 금하며, 안장언치는 가죽을 쓰고, 안장자리는 綿紬・絨布・가죽을 쓴다. 障泥(흙받이)는 麻油를 써서 염색하고, 재갈・등자는 金銀・鍍・栢와 鍍金銀・綴玉의 사용을 금하며, 고삐는 가죽과 삼(麻)을 쓴다. 六頭品 女子의 鞍橋는 紫壇・沈香의 사용과 金으로 짜고 玉으로 꿰는 것을 금하며, 안장언치와 안장자리는 罽羅・總羅를 금하고, 脊籠은 綾・絨・絹을 사용한다. 재갈・등자는 金銀・鍍・栢를 사용하거나 金銀鍍 하고 玉을 꿰는 것을 금하며, 흙받이는 가죽을 쓰고, 고삐는 실로 짠 것을 쓰지 않는다.

五頭品の 鞍橋는 紫壇・沈香과 黃楊・槐・栢의 사용을 금하고, 또한 金銀・綴玉을 하지 못하며, 안장언치는 가죽을 쓰고, 흙받이는 麻油를 써서 염색한다. 재갈・등자는 金銀・鍍・栢를 금하고, 또 金銀으로 칠하거나 새기지 못하며, 고삐는 麻를 사용한다. 五頭品 女子의 鞍橋는 紫壇・沈香을 금하고, 또 金・銀・玉의 사용을 금하며, 안장언치와 안장자리는 罽羅・綾・虎皮를 금하고, 재갈・등자는 金銀・栢를 금하며, 또 金銀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한다. 흙받이는 가죽을 사용하고, 고삐는 실끈으로 짠 것과 紫紫粉으로 광채 있는 두른 실끈을 금한다.

四頭品에서 百姓에 이르기까지 鞍橋는 紫壇・沈香・黃楊・槐・栢의 사용을 금하고, 또 金・銀・玉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하며, 안장언치는 소와 말의 가죽을 쓰고, 안장의 요는 가죽을 쓴다. 흙받이는 楊竹을 쓰고, 재갈은 鐵을 사용하며, 등자는 나무와 철을 사용하고, 고삐는 흰줄이나 삼(麻)으로 잡아매다. 四頭品 女子에서 百姓女子에 이르기까지의 鞍橋는 罽羅・鍍羅・沈香・黃楊・槐・栢의 사용을 금하고, 또 金・銀・玉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한다. 안장언치와 안장자리는 罽羅・總羅・綾과 虎皮를 금하고, 재갈과 등자는 金銀・鍍・槐木의 사용을 금하며, 또 金銀 裝飾을 금한다. 흙받이는 가죽을 사용하고, 고삐는 실로 짠 것이나 紫紫粉으로 광채있게 두른 실끈을 금한다.

또한 신라에서는 짐을 지을 때에 신분의 등급에 따라 馬金數를 제한하였다. 이는 아마 경주시내에 한한 것일 것이다. 六頭品인 경우 5두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마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五頭品의 경우 3두, 사두품은 3두 등으로 제한하였다(李始永, 『前掲書』, 1991.)

6) 崔炳鉉, 「新羅鏡子の 再考察」,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넓게 하거나 懸垂孔 주위를 두껍고 넓게 한 것 등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短柄系는 長柄系에 비해 柄部가 짧고 폭이 넓어 둔중하게 보인다고 하였다.

신경철⁷⁾은 小野山節씨의 新·古式鍔子 분류⁸⁾를 기준해서 동래 복천동 고분군 출토 鍔子を 古式 鍔子 A, B 2型으로 細分하였다. 輪部 형태가 主分類基準이며 그 중 A형은 하트형, B형은 삼각형이다. 이들 祖型은 중국 4세기대 유적에 비정하면서 A형은 安陽 孝民屯 154號墓, B형은 長沙市 金盆嶺 21號墓 출토 馬具係에 묘사된 삼각형 동자를 예로 들고 있다.⁹⁾ 그리고 新式 鍔子の 출현을 경주 황오리 14호분 제 1부곡(木心전체를 철판으로 씌운 例)과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품으로 보고 5세기 중엽 혹은 5세기 중엽의 늦은 시기로 추정하였다.

또 新式 鍔子 중에서 柄部和 輪部를 씌운 철판의 중간에 菱角을 세워 단면이 五角形에 가까운 동자를 池山洞型 鍔子라고 명명하고 이 鍔子가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처럼, 대가야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점과 原城郡 범천리 1호분에서도 출토되고 있는 점등을 들어 백제로부터 유입되었다고 하였다.

류창환¹⁰⁾은 가야¹¹⁾고분 출토 木心鐵板被輪鍔을 8가지 屬性¹²⁾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결합시켜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踏受部の 형태는 輪部와 같은 동일한 폭(Ⅰ)에서 측면 폭이 넓어지는 것(Ⅱ)으로 변화한다. 柄部 형태는 폭에 비해 길이가 2.1~2.8배로 형태가 두껍고 짧은 것(A)에서 폭에 비해 길이가 3.1~4.8배로 형태가 細長한 것(B)으로 바뀌어 간다. 여기에 다시 外裝鐵板의 형태와 構造를 세분하여 덧붙인다. ⅠA式은 外裝鐵板 구조가 간단한 것이 먼저 출현하고 柄部和 輪上半部까지 금속을 덮은 부산 복천동 10호분 출토품 형태를 마지막 단계로 보았다. ⅠB式은 금속이 木心전체를 씌운 것으로 가장 발달된 형태¹³⁾로 보았다. 그러나 Ⅱ式에서는 外裝鐵板의 구조가 간단한 것에서 목심전체를 씌우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 단계의 제작과정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量産化로 想定하고 있다.

7) 申敬徹, 「伽耶의 武器와 馬具-甲冑와 鍔子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第7輯, 1989.

8) 小野山節, 「日本發見の初期の馬具」, 『考古學雜誌』 52-1, 1966.

9) 실용동자를 도자기에 표현된 형태와 관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동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10) 柳昌煥, 「伽耶古墳 出土 鍔子에 대한 研究-木心鐵板被輪鍔을 中心으로-」,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11) 가야지역 -- ① 부산·김해지역 ② 대가야지역: 거창, 함양, 합천, 고령 군, 장영지역

12) 8가지 속성 -- 병부의 형태, 병두부의 형태, 병부의 단면형태, 운부의 형태, 운의 단면형태, 넘수부의 형태, 넘수부철정의 형태, 외장철판의 형태와 구조

13) 外裝鐵板의 形態와 구조상 보다 높은 鐵板 截斷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두철¹⁴⁾은 騎乘時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완화하도록 踏受部에 박은 큰 못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踏受部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前期의 柄部 二段鐵板補強의 기술은 柄部 下段과 輪部 上方을 鐵板으로 補強한 것과 鐵帶로서 補強하는 2개의 系譜로 나누었다. 그 중 鐵帶로 補強하는 것은 신라에도 傳來되어 다음 시기까지 그 전통이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 외 鏡子를 부수적인 입장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다.

김창호¹⁵⁾는 袁台子 鏡子는 木心鐵被이고 安陽 孝民屯 鏡子는 靑銅製이기 때문에 積石木槨墳에서 출토되고 있는 木心金屬板被輪鏡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 積石木槨墳 출토의 鏡子和 같은 종류인 高句麗 七星山 96號墳의 木心金銅板被輪鏡을 반출되는 銅器에 근거하여 4세기대로 보았다.

강유신¹⁶⁾은 경주지역 古新羅 古墳에서 출토된 木心金銅板被鏡子和 고구려 七星山 96號墓, 集安 萬寶丁 78號墓 출토의 木心金銅板被鏡子를 대비하였다. 황남대총 북분과 만보정 78號墓 木心金銅板被鏡子는 제작기법과 형태면에서 유사하고 동반되는 立柱附雲珠 등을 고려하여 두 古墳을 같은 時期인 5세기 전만으로 추정하였다.

최종규¹⁷⁾는 고구려 七星山 96호묘 출토 鏡子의 특징 중 하나인 踏受內側 돌기가 경주 황남동 98호분 남분, 대구 달성 37호분 2곽, 부산 동래 복천동 10·11호분, 21·22호분, 35·36호분 출토품에서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 부산 복천동 출토 鏡子 중 輪面에 鐵製棒이 둘러져 있는 것을 경주 황남동 109호분 3·4곽 출토품과 同型式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鏡子 자료가 영남지방에 편중되어 있고 연구성과도 신라와 가야에 집중하고 있다. 커다란 흐름은 鏡子 가운데 輪部의 상하 幅이 같은 것보다는 하단의 폭이 넓거나 또는 발달는 부분을 2~3가닥으로 늘려 면적을 넓게 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축을 많이 배치한 것이 보다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또 短柄系에서 長柄系로 발전해 간다는 원리는 相通하고 있다.

용어 중에서 短柄系·長柄系의 기준은 다만 전체길이를 비교하였을 때 짧은 것은 短柄系, 긴 것은 長柄系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각 형식을 규정했을 때 단지 柄部 길이만으로 설정하지는 않지만, 만약 전체길이

14) 손斗誌, 「嶺南地方 騎乘文化의 受容과 發展」, 『伽耶古墳의 編年 研究Ⅲ—甲冑와 馬具—』, 第4回 嶺南考古學會學術發表要旨, 1995.

15) 金昌鎭,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400年 上限說에 대한 의문」, 『嶺南考古學』 4, 1987.

16) 姜裕信, 「新羅·伽耶古墳 出土 馬具에 대한 研究—金銅製杏葉 雲珠 鏡子를 중심으로—」,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17) 崔鍾昌, 「韓國·中斯古墳의 性格에對する若干의 考察」, 『古代文化』 12, 1984.

만을 속성으로 하였을 때는 短鐙子, 長鐙子로 命名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長柄系, 短柄系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등자 전체길이에 대해 柄部の 길이가 길거나 짧을 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최근 발굴 조사로 김해, 부산, 함천지역 자료가 증가되어 가야와 결부시키려는 내용과 시기적으로 이른 단계의 자료를 중국 북방민족과 관련지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 신라 4~6세기대의 적석목곽분의 원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출토 유물 가운데 鐙子가 취급되어지기도 한다.¹⁵⁾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鐙子の 제작기법, 특히 木心系 鐙子の 金屬補強手法에 따른 분류를 통해 형태 변화를 살피고, 각각의 형태가 지나는 지역적 특색과 이들 서로간의 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Ⅲ. 主要 鐙子

1. 경주지역

1) 皇南洞 109號墳 3·4槨¹⁶⁾

부식되어 파손이 심하지만 出土狀態대로 복원한 것이다. 柄部の 상하폭은 같고 頭頂部는 둥글다. 輪部는 斷面 梯形의 목재로 형태를 제작하고 外側을 細長한 철판을 조합해서 덮었으나 內部 목재는 거의 부식되어 外圍철판으로 그 흔적을 알 뿐이다. 柄部는 거의 全面에, 輪部는 내외 측면에만 철판을 붙였던 것 같다. 그리고 윤부에서는 상단의 앞뒀던 木心위에 좁은 鐵帶를 한줄씩 덧붙였던 것 같다.¹⁷⁾ 柄部 上頭部는 完存하고 矩形孔이 있다. 다른 하나는 이것보다 파손이 더 심하다.

2) 皇吾洞 14號墳 第 1副槨¹⁸⁾

①단면 矩形인 木心을 둥글게 구부려 형태를 만든 후 그 위에 두께 0.6cm의 철판을 덮었다. 柄頭部는 둥글고 懸垂孔이 장방형이다. 輪部는 타원형에 가깝고 단면은 梯形이다. 나머지 1개분의 파편 中 2側面 모두 外部에서 內部로

15) 최병현의 경우, 적석목곽분의 상한연대에 등자를 이용하고 있다.

16) 蔚山府志, 『慶州皇南洞第109號墳皇南洞第14號墳調査報告』, 昭和九年(1937)古蹟調査報告, 1937.

17) 최병현은 東萊 福泉洞 고분군 52식 단명계 등자와 비교하여, 윤부 가운데의 도드라진 부분을 덧붙인 鐵帶로 보았다.

18) 蔚山府志, 『前掲書』, 1937.

박은 鐵이 있어 外被의 천판으로 내부의 목재를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가는 帶모양의 鐵製薄板을 조합하였으나 木心이 부식되어 부분적으로 철판만 남아 있다. 내외측에는 폭이 넓은 천판을 사용하고 表裏 양쪽에는 斷面이 약간 두꺼운 細板을 대고 곳곳에 細鐵을 박아 고정시켰다. 柄頭部는 圭形에 가깝고 懸垂孔은 장방형이다. 柄部에는 못을 정렬되게 6行 5列로 박았다.

3) 皇南大塚 南墳²⁾

①透彫金銅板被玉蟲裝釘子 1雙은 목재로 형태를 제작한 위에 白樺樹皮를 깔고 병부와 윤부 縱방향으로 玉蟲 날개를 깔았다. 봉황문의 金銅透彫板을 씌우고 周緣에 0.7~0.8cm 간격으로 金銅圓頭釘을 박아 걸착시켰다. 柄頭部는 타원형을 띠고 상단에는 반원형 懸垂孔이 있다. 답수부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方形의 釘을 3개 박아 고정시켰다. 병부 단면은 장방형이고 윤부 단면은 梯形을 띤다.

②木心金銅板被釘子 2雙 中 完形의 병부는 약간 짧고 평면 폭이 넓은 형식으로 두 길래 목재를 휘어서 형태를 제작하고 췌기를 삽입하였다. 전체적으로 金銅板을 씌웠는데 前面과 背面, 外側面과 內側面은 각각 다른 板으로 제작하였다. 병부에는 반원형의 懸垂孔이 있고 柄頭는 둥글다. 윤부는 側面에 2.4~4.2cm 간격으로 金銅釘을 박고 이것을 중심으로 평면에 左·右로 교차되게 박았다. 병부는 외연을 따라 直徑 0.2cm 크기의 金銅釘을 박았는데 左·右 대칭이 되게 양쪽으로 각각 4개씩 박았다. 답수부에는 3개의 방형 金銅釘을 박았다.

③木心鐵板被釘子 1雙은 斷面 梯形의 목심을 둥글게 휘어서 양끝이 병부의 莖部에서 합쳐진 후 벌어진 틈에 삼각형의 췌기를 삽입하여 고정시켰다. 外面 모두 철판으로 감싸고 병부에는 列이 교차되게 5列의 鐵製圓頭釘을, 윤부에는 3列을 박아 고정시켰다. 병부에는 懸垂孔 대신 구멍을 뚫어 斷面 반원형인 鐵棒 2개를 鐵製賣金具와 연결하고 있다. 병부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윤부의 형태는 圓形에 가까우며 단면은 梯形을 띤다. 답수부에는 方頭釘 3개를 같은 간격으로 박았으며 下段 中央이 안쪽으로 약간 내만하는 기미가 있다.

④靑銅釘子 1雙은 목심을 사용하지 않고 靑銅으로만 주조하였다. 표면에 있는 圓頭釘은 박은 것이 아니라 주조된 것이다. 병부에는 0.3cm 간격으로 5列의 圓頭釘이 있고 상단에는 上岡下方形的 懸垂孔을 뚫었다. 윤부에는 4列의 圓頭釘을 표현하고 답수부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3개의 돌기를 표현했는데

2) 金井基 外, 『應州皇南洞 98號古墳(南墳)發掘報告』, 1976.

文化財管理局, 『皇南大塚(南墳)』, 1981.

간격이 모두 동일하다.

4) 仁旺洞 19號墳 J柳²³⁾

内部 木心이 완전히 부식되어 바깥에 돌렸던 철판만 남았다. 踏受部만 내부 木心이 보이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全体를 鐵板으로 덮었다. 銀製못을 사방에 박아서 철판을 고정시키는 역할과 장식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5) 天馬塚²⁴⁾

斷面 矩形인 나무를 구부려서 형태를 제작하고 그 外面에 얇은 金銅板을 작은 못으로 고정하였다. 輪部和 柄部가 접하는 곳에 三角形 썰기를 박아 변형을 방지하였다. 柄上部에는 長方形의 縣垂孔이 있다. 3雙 중 북편에서 나온 1雙은 송곳같이 날카로운 것으로 點線波狀文을 새겼다. 南便에서 출토된 1雙은 輪部內側に 矩形의 돌기가 3개 있다.

6) 金鈴塚²⁵⁾

①木心이 金銅板을 덮은 것으로 輪部に 步搖를 붙였다. 斷面 方形의 木材를 구부려 輪部를 만들고 그 양끝을 합쳐서 폭이 넓은 柱狀의 柄部를 만들었다. 數枚의 金銅板으로 全面을 덮고 鉚으로 고정시켰다. 輪部 한면의 鉚 사이 사이에는 圓形薄板을 針金으로 꿰매어 장식하고 있다.

②木心金銅板被輪鐙이라는 점에서는 ①과 같지만 위의 것보다 작다.(推定 길이:15cm정도) 輪의 條는 가늘고 斷面은 矩形이다. 덮은 板은 4枚를 합쳐서 鉚으로 고정시켰다. 1對 모두 파손이 심해서 겨우 형태를 가늠할 정도이다.

7) 飾履塚²⁶⁾

①가는 木材를 구부려 輪部를 만들고 그 양쪽을 합쳐서 柄部를 제작하였다. 表面에 덮은 鐵板을 鉚으로 고정시켰지만 파손이 심해서 1個는 柄部만 남았다.

②위의 것과 동일한 제작기법이지만 鐵板이 약간 두껍다. 그리고 그 위에 鱗狀文을 打出한 金銅薄板을 씌워 장식하였다.

8) 味鄒王陵地區 제 7구역 제 3호분²⁷⁾

23) 謝永植·黃龍潭, 『慶州 仁旺洞19·20號古墳發掘報告』, 1974.

24) 余正基 外, 『天馬塚』, 1974.

25) 梅原未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1932.

26) 梅原未治, 『前掲書』, 1932.

27) 金廷陽 外, 『味鄒王陵第7地區古墳群發掘調査報告』,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 第二輯, 1980.

木心은 부식되어 柄部 上段, 柄과 輪의 집합부에 보강한 철판만 출토되었다. 병부의 頭頂部는 직선이며 懸垂孔은 장방형인데, 복원할 경우 懸垂孔이 앞뒤로 뚫리는 것과는 달리 좌우로 뚫린 것이 된다.

2. 부산 지역

1) 복천동 21호분(부곽)²⁸⁾

柄部는 先端이 半圓狀을 띠고 있다. 上半部의 전후면에 上圓下方狀의 鐵板을, 이하 輪上方部에 이르기까지 역Y자상의 鐵板을 木心에 대어 각각 圓頭釘으로 접합시켰다.

2) 복천동 22호분(주곽)²⁹⁾

첫번째 유형은 목재로 형태를 만든 다음 柄部 側面과 輪部 外側面에 鐵板帶를 대고 鐵釘으로 고정시켰다. 柄上半部 전후면에 철판을, 柄下半부와 輪部 전후면 중앙에 철판을 補強하였다. 柄頭部는 반원형이고 輪部 단면은 약간 梯形을 띤다. 윤부는 전체적으로 원형을 띠고 답수부는 내측으로 돌출하였다. 이 제작방법과 매우 유사한 것이 복천동 35호분 출토품³⁰⁾이다.

두번째 유형의 輪部는 형태상 완전한 圓形을 띠고 있다. 柄部는 상방부 전후면에 方形鐵板을 대어 4개의 圓頭釘을 각 모서리에 박아 목심에 고정시켰다. 이 方形鐵板의 上端中央部에는 斷面 타원형 철판을 구부러 만든 圓形環을 前後方으로 부착하여 懸垂孔을 만들었다. 또한 柄中位 側面에는 원형 철판을 縱으로 대어 보강하였다. 조금의 공간을 두고 輪上部에는 弧狀의 짧은 鐵板帶를 柄下方의 方形鐵板 양측으로 접쳐대고 있다.

3) 복천동10호분³¹⁾

2쌍이 出土되었는데 형태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하나 제작기법은 동일하다. 단면 梯形의 목재로 삼각형 윤부를 만들고 양끝을 柄莖部에서 합쳐 柄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나무결 흔적에 의해 인정된다. 윤부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삼각형 폐기를 삽입했다. 윤부 내측면에는 폭 1.3cm의 鐵板帶를, 병부 양측면과 윤부 외측면에는 幅 0.7cm의 鐵板帶를 圓頭釘을 박아 고정시켰다. 병

28) 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II』, 1990.

29) 釜山大學校博物館, 『前掲書』, 1990.

30) 申鶴純, 『前掲書』, 1989.

31) 鄭鎔元・申鶴純, 『東萊福泉洞古墳群I』, 釜山大學校博物館, 1983.

부와 윤부 상반부 전후면에만 철판을 Y字狀으로 오려 못으로 密着시켰다. 답수부에는 미끄림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方頭釘 3개를 等間隔으로 박았다.

3. 창녕지역

1) 교동 2호분³²⁾

목재로 형태를 제작하고 柄部の 3/4지점까지 철판을 씌우고 가로 3열의 못을 9줄정도 박았다. 그 아래 부분과 윤부는 폭 0.8cm가량의 철판을 못으로 집합시켰으나 그 先端部는 뾰족하게 처리하여 踏受部에 못미쳐 끝난 것 같다.

2) 교동 3호분³³⁾

2쌍이 출토되었는데 1쌍은 杵部에서 輪部까지 全面에 철판을 덮고 前後면에는 작은 圓頭釘을 많이 박았다. 답수부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角釘을 박았다. 그 외 1쌍은 위의 2호분 출토품과 형태와 제작기법이 같다.

4. 합천지역

1) 옥전고분군³⁴⁾

67 A, 5, 35, 8, 91, 70, 82, M2호분 출토품은 제작기법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목재를 구부려 형태를 갖춘 후 柄과 輪의 집합부에는 삼각형 나무쇠기를 삽입하여 변형을 방지하였다. 柄部 측면과 輪部 내외측면에 鐵板을 대고 圓頭釘을 박아 접합하였다. 輪上部와 柄部 전후면에 역Y자상의 철판을 오려 붙이고 圓頭釘을 박아 木心을 고정·보강하였다. 柄上部에서 輪下部까지 측면폭이 거의 동일폭으로 만들어졌다. 67-A호분 출토품을 제외하고는 답수부 내측에 대형 方頭釘을 장치하였다. 옥전 8호분, 91호분, 70호분, 82호분, M2호분은 정연한 2열의 못을 전체적으로 박고 있다. 옥전 8호분 이외에는 모두 2열의 중앙

32) 沈本雄 外, 『昌寧校洞古墳群』, 東亞大學校博物館, 1992.

33) 沈本雄 外, 『前揚古』, 1992.

34) 慶尙大學校博物館, 『玉田古墳群Ⅰ—木槨墓—』, 1988.

『玉田古墳群Ⅱ—M3號墳—』, 1990.

『玉田古墳群Ⅲ—M1, M2號墳—』, 1992.

『玉田古墳群Ⅳ—M4, M6, M7號墳—』, 1993.

『玉田古墳群Ⅴ—M10, M11號墳—』, 1995.

『玉田古墳群Ⅵ—23・28號墳—』, 1997.

柳昌旼, 『前揚古』, 1994.

에 능각을 세웠다.

옥전 28호분은 목재를 구부려 형태를 제작하고 목심 내외측면에 철판을 못으로 접합시켰다. 병부 상반부 전후면에는 철판을 대고 못을 촘촘히 박아 고정시켰으나 그 이하 前後面 중앙에는 鐵棒을 못으로 접합시켜 보강하였다. 같은 형태와 제작기법을 보이는 것이 옥전 95호분 출토품이다.

5. 고령지역

1) 지산동 32호분³⁵⁾

斷面 矩形인 木心에 別造된 4매의 鐵板을 못으로 박아 고정시켰다. 輪部는 한 나무를 원형으로 휘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닥의 나무를 굽기가 같도록 斜面으로 잇대어 만든 것이다. 두 가닥을 합쳐서 柄部를 만들고 그 벌어진 틈에 3각상의 나무 쐐기를 박았다. 輪部 형태는 橢圓形이고 踏受部에는 5개의 方頭釘을 박았다. 輪部和 柄部는 兩面가운데 한쪽면은 편평하며 다른 한 면은 중앙에 세로로 얇은 稜角이 서 있어 5각형 斷面을 이룬다.

6. 함양지역

1) 白川里 1호분³⁶⁾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노출상태에서 복원하였다. 거의 圓形인 輪部 외측에만 철판대를 씌우고 답수부에는 비교적 넓은 철판으로 보강하였다. 柄部는 혁대를 끼우는 先端部에만 장방형의 철판을 씌우고 4개의 못으로 고정시켰다. 윤부와 병부 연결지점에 역I字狀의 철판을 덮고 5개의 못으로 접합시켰다.

7. 청주지역

1) 新鳳洞 고분군³⁷⁾

60호분 출토품은 1쌍분의 파편으로 목심을 덮었던 일부 철판만 남아 있다. 柄部和 輪部 외측면에는 얇은 철판대로 고정하였다. 柄部 상단부에만 철판으로, 柄과 輪의 접합부에 역I字형 철판으로 보강하였다. 답수부는 비교적 넓

35) 金鍾敏, 『高靈池山洞古墳群』, 啓明大學校博物館, 1981.

36) 釜山大學校博物館, 『咸陽白川里 1號墳』, 1983.

37) 忠北大學校博物館, 『清州 新鳳洞 古墳群』, 1995.

은 철판대로 고정시켰다.

80호분 출토품은 斷面 장방형 목재로 輪과 柄을 제작하여 철판을 덮고 못으로 고정시켰다. 柄部和 윤부 前面과 後面에 일정한 간격으로 柄部 5行, 輪部 4行 못을 박았다. 輪部는 횡타원상이고 답수부는 수평이다. 97-1호분 출토품도 거의 동일하게 제작되었으나 柄部 5列, 輪部 3列 못을 박았다.

93호분 출토품은 斷面 장방형 목재로 輪과 柄을 제작하여 철판을 덮고 못으로 고정시켰다. 輪部는 횡타원형이고 안쪽면에서 못을 一列로 박아 고정시켰다. 병부 전체와 윤부 상반부까지 연결된 철판이 남아 있다.

IV. 鍔子の 分類

고고학적 분류는 人文物을 기능적(functional), 편년적(chronological), 분포적(chorological)이라는 3좌표에 의해 分類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單位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³⁸⁾

등자는 金屬製와 木心製로 나누어진다. 그 중 金屬製는 등자 전체가 목심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靑銅이나 鐵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木心製는 단면 梯形 혹은 矩形的 나무로 형태를 제작하고 그 위에 金屬板(鐵板 혹은 金銅板)을 씌운 것이다. 金銅板被鍔子는 木心を 구부려 漆被나 기타의 방법으로 먼저 形態를 결정하여야만 金銅板被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鐵板被鍔子는 앞의 공정을 생략하고 木心を 구부려 합친 후 바로 철판으로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목심제 등자는 금속판의 형태와 보강수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圖 1)

A유형—柄部 상반부와 輪部 上半部 등 특정부위에만 따로 철판을 씌운 형태

B유형—柄上半部 전후면에 철판을 씌우고 柄下半部和 輪部 前面 혹은 後面 중앙에 절봉을 접합한 형태

C유형—柄部 전체와 輪上半部에 철판을 씌운 형태

D유형—木心外面 전체를 금속으로 씌운 형태

38) 型式은 일정 공간 내에 있어서 개개의 資料가 가지고 있는 많은 屬性 중에서 시간적 추이를 나타내는 屬性과 그 외의 중요 屬性들이 추상화된 개념으로 통합된 分類單位이다. 類型式은 型式을 통합한 分類單位로서 機能과 用途를 중시한 개념이다. 樣式은 일정 공간 내에 있어서 여러 집단의 특정 생활상을 반영하는 광범된 類型式을 통합한 分類單位이다. (朴廣泰, 『伽倻土器의 分類單位 設定과 編年—陝川地域古墳 出土土器를 對象으로—』, 『伽倻文化』 7, 伽倻文化研究院, 1994. V.Gordon Childe, 『Piecing Together the Past』,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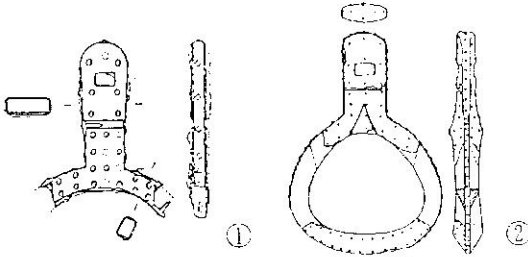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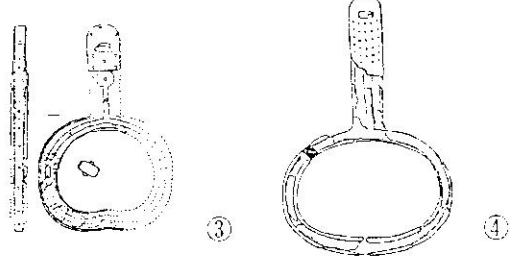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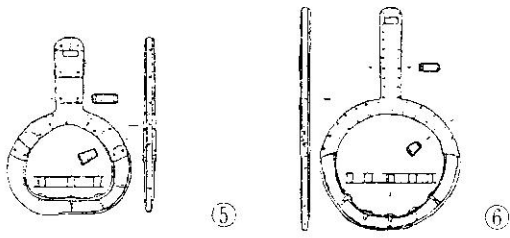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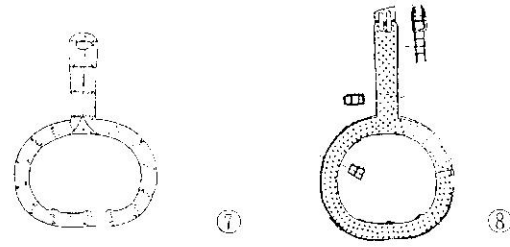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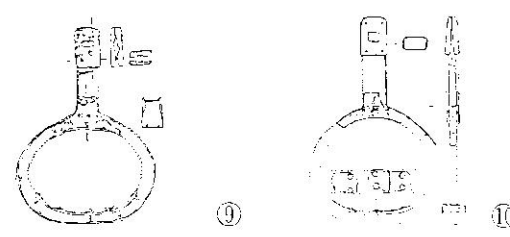
A 유형		① 김해 대성동1호분 ② 중국 몽소불묘
B 유형		③ 부산 복천동35호분 ④ 경주 황오리14호분
C 유형		⑤ 부산 복천동10호분 ⑥ 합천 옥전8호분
D 유형		⑦⑧ 경주 황남대총 남분
E 유형		⑨ 고령 지산동44-25 호분 ⑩ 합천 옥전M7호분

圖 1. 大心系 鏡子의 類型

E유형—懸垂孔주위, 柄部와 輪部の 연결부분 그리고 踏受部에만 철판을 보강한 형태, 부수적인 요소로 답수부 부분이 넓어졌다.

금공품 생산은 원료인 金, 銀, 銅의 산지는 한정되어져 있고, 원료의 채취에서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專門化된 工人내지는 工人集團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⁴⁰⁾ 이것은 물론 금공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철기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금공품이나 철제품에 있어서 형태변화는 제작집단내의 변화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 유입 즉, 문화의 전파⁴¹⁾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1. 時期的 樣相

마구가 도입되던 초기 등자는 韋被 또는 木心鐵板被가 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⁴²⁾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鐵製 鍔子가 대량으로 제작되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鐵板被, 金銅板被는 계속 사용되었다. 이러한 木心系 등자에 있어서 금속보강법에 따른 각 유형의 시기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³⁾

39) 그 제작에 필요한 공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原料인 金, 銀, 銅의 산지는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產地 發見과 採掘에 필요한 專門的 工人 내지 工人集團(採掘集團)의 존재가 생각된다. (2) 金·銀·銅의 채굴집단은 한곳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또 原料產地는 製作地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運搬組織이 필요하다. (3) 운반된 原石은 鑄造工程을 거치는데 여기에도 材料別로 熟練工이 존재했을 것이다. (4) 개련공정을 거친 재료는 製作工程 중에서도 좀더 細分된 숙련공 金箔工, 鍔造工, 鍛造工, 鍔金工, 圓案工 등이 있었을 것이다. (小林行雄, 『古代の技術』, 昭和37年, 野上史助, 『特殊な手工業の發達』, 『日本民族の歴史』I 所収, 昭和49年, 矢野龍溪(敍), 『天工開物』, 東洋文庫 130, 昭和43年.)

40) 傳播(diffusion)란 문화요소들이 한 지역에서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移住, 貿易, 戰爭 및 다른 접촉들에 의해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傳播는 直接傳播과 間接傳播로 나눌 수 있는데 間接傳播란 문화요소의 직접적인 유입이 아니라 개념이나 생각이 전파되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또 傳播를 一次的傳播과 二次的傳播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一次的傳播는 다른 문화의 복합적인 특성과 함께 改良이 소개되는 경우로 다른 집단에 의한 침략이나 정벌과 함께 이루어진다. 二次的傳播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改良만이 채용되거나 합병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끔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유물과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고고학적 입장에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진다. (崔福浩, 『韓國考古學에 있어서 傳播論의 解釋의 檢討』, 『韓國考古學史學報』19, 1995.)

41) 革製자제만으로 관습어진 것은 현존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복제품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2) 鐵板을 씌우는 방법이 製作工程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鐵板의 형태차이가 시기

㉠ A유형—柄部 상반부와 輪部 上半部 등 특정부위에만 따로 철판을 보강하는 형태

부산 복전동 48호분 출토품⁴³⁾은 柄과 輪의 접합부 전후면에 역T자상의 철판을 鐵釘으로 집합시켰다. 輪部 下方部 전후면은 殘片으로 보아 철판을 보강하였다.

김해 대성동 1호분 출토품⁴⁴⁾은 柄의 側面과 輪上方部の 内外側面에 鐵板帶를 집합하고 柄上半부와 병부·윤부 연결지점 前後면에 鐵板을 대어 鐵釘으로 집합시켰다. 이것은 병부 상반부와 그 바로 밑에서 윤부 상반부까지 연결되는 철판을 각각 따로 대고 있다.

부산 복전동 21호분(부적) 출토품⁴⁵⁾은 병부 上半部の 前後면에 上圓下方狀의 鐵板을,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 윤부 上半部に 이르는 鐵板을 각각 圓頭釘으로 집합시켰다. 이것은 김해 대성동 1호분 출토품과 철판을 씌우고 있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이것과 유사한 금속보강법에는 中國의 馮素弗墓 출토품이 있다. 馮素弗墓 출토품⁴⁶⁾은 뽕나무 木心에 黑漆을 하고 금동판을 붙였는데 輪部 中段의 앞뒷면은 세워서졌다. 즉, 병부 상반부에 上圓下方狀의 金銅板을, 그 바로 밑에서 윤부 上半部に 이르는 金銅板을 각각 못으로 집합시켰다. 그리고 답수 부분에 따로 金銅板을 대고 있다. 이 등자는 三角形 輪部로 적석복곽분의 연대결정에 커다란 기준이 되고 있다. 415년이라는 절대연대가 있어 경주 황남동 109호 3·4곽이 5세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⁴⁷⁾ 그러나 그 절대연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4세기말~5세기초 중국에서 유행하던 형태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⁴⁸⁾ 혹은 풍소불이 생존해 있던 4세기 중반 혹은 4세기 초반에도 이러한 형태의 등자가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김해 대성동 1호분 출토품에서, 윤부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병부 상반부와 그 바로 밑에서 윤부 상반부까지 연결되는 철판을 각각 따로 씌운 것에서 매우 흡사함을 엿볼 수 있다.

차를 반영하는 것도 있다.(千賀久, 「日本出土初期馬具の系譜」,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9, 1988.)

43) 中敬敏 「佛耶 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山史學』18, 1994.

44) 柳昌煥 「前掲書」, 1994.

慶星大學校博物館發掘調査團, 「金海 大成洞古墳群 第2次 發掘調査概要」, 1991.

45) 釜山大學校博物館, 「前掲書」, 1990.

46) 黎銘淵 「遼寧北票縣西陽營子北燕馮素弗墓」, 『文物』1973·3.

47) 穴澤和光・馬田順 「北燕馮素弗墓の地誌する問題」, 『考古學ジャーナル』85, 1973.

金昌錫 「前掲書」, 1987. 등의 반론들이 나오게 되었다.

48) 李熙溶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 『嶺南考古學』17, 1995.

② B유형—柄上半部 전후면에 철판을 씌우고 柄下半部와 輪部 前面 혹은 前後面 중앙에 철판을 접합한 형태

부산 복천동 21호분의 주곽인 22호분⁴⁹⁾에서는 2가지 형태의 등자가 출토되었다. 첫번째는 B유형으로 병부 上半部의 前後면에 철판을 씌우고 柄下半部와 輪部 前面 혹은 前後面 중앙에 철판을 접합시킨 형태로 부산 복천동 35호분 출토품⁵⁰⁾과 합천 옥전 68호분 출토품⁵¹⁾이 여기에 속한다.

위와 같은 B유형 금속보강법에는 경주 황오리 14호분 제 1부곽 출토품 중 병부 上端部에만 따로 鐵板을 댄 것이 있다. 이것은 병부의 端이상 鐵板을 대고 그 위에 가로·세로의 열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그 이하 前面 또는 前後면 중앙에 鐵棒을 못으로 접합시켜 보강하였다. 합천 옥전 28호분·95호분, 창녕 교동 2·3호분은 비율적으로나 제작기법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닮고 있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鎧子片 중 이러한 형태의 柄部片도 보인다.

두번째는 21호분 출토품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즉 A유형의 예와는 조금 다르게 병부 상반부 바로 밑에서부터 철판을 씌우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병부 하단부와 윤부 상부에 각각의 철판을 겹쳐 접합시켰다. 철판이 덮히지 않은 병부 부분에는 철판을 보강하였는데 이것은 B유형의 속성이다. 이와 같은 제작방법은 A유형과 B유형이 복합된 것으로 보고 싶다. 이처럼 두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출현하는 것은 두 유형이 어느 한 시기에 공존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③ C유형—柄部 전체와 輪上半部를 철판으로 씌운 형태

이 유형은 A유형 중에서 병부 상반부까지, 또 그 바로 밑에서 윤부 상반부까지 각각 다른 철판을 씌운 것에 대해 하나로 연결된 철판을 사용함으로써 기술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부산 복천동 10호분에서는 2쌍이 出土되었다⁵²⁾. 형태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나 제작기법은 동일하다. 이 두개와 제작기법이 동일한 것은 합천 옥전 67-A호분 출토품圖⁵³⁾이 있다⁵⁴⁾. 이것은 부산 복천동 출토품 중에서 三角形 輪部를 가진 출토품외의 다른 1雙과 거의 같은 형태이다.

49) 釜山大學校博物館, 『前掲書』, 1990.

50) 申敬敏, 『前掲書』, 1989.

51) 柳昌煥, 『前掲書』, 1994.

52) 鄭潁元·申敬敏, 『前掲書』, 1983.

53) 柳昌煥, 『前掲書』, 1994.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는 67-A호분, 5호분, 35호분, 8호분, 91호분, 70호분, 82호분, M2호분 등과 청주 신봉동 93호분에서 출토되고 있다.

④ D유형—木心外面 전체를 금속으로 씌운 형태

경주 황오리 14호분 제 1부곽⁵⁴⁾에서 출토된 또 하나의 등자는 보고서의 사진에서 보면 柄部에서 輪部까지 全面에 철판을 덮고 前後면에는 작은 圓頭釘을 많이 박았을 가능성이 있다.⁵⁵⁾

경주 황남대총 남분⁵⁶⁾에서는 여러 종류의 등자가 出土되었는데 재질면에서도 玉蟲, 金銅 鐵板 등 다양하다. 玉蟲과 金銅은 형태와 제작기법 면에서 거의 동일하며 윤부의 형태는 타원형이다. 玉蟲과 金銅의 경우는 2열의 못을 전체적으로, 鐵板은 3열의 못을 교차하여 뻗뻗하게 박았다.

합천 옥전 M1호분 출토품⁵⁷⁾과 M3호분⁵⁸⁾ 출토품은 윤부 상반부에 비하여 답수부의 측면 폭이 크게 넓어졌다. 윤부 형태는 橫橢圓形이며 답수부는 직선상이다. 병부와 윤부의 단면은 장방형을 띤다. 옥전 M1호분 출토품⁵⁹⁾은 못을 병부에 3열로 각각 열을 교차되게 박았다.

⑤ E유형—懸垂孔주위, 柄部和 輪部の 연결부분 그리고 踏受部에만 철판을 보강한 형태

이 유형은 병부 상반부의 懸垂孔주위에 따로 철판을 대고 柄部和 輪部를 연결하는 지점에 역T자상의 철판을 씌운다. 그리고 踏受部에만 따로 넓은 철판을 덮는다.

합천 옥전 M7호분⁶⁰⁾·반계재 가A호분⁶¹⁾, 함양 백천리 1-3호분⁶²⁾, 청주 신봉동 60호분⁶³⁾ 출토품 모두 병부 상단부와 병부·윤부의 연결부, 그리고 답수부에만 철판을 덮었다. 답수부는 넓어져 2개의 돌기를 가지고 있다. 고령 지산동 14-25호분 출토품⁶⁴⁾ 역시 같은 제작기법이며 윤부는 三角形과 橢圓形의 중간 형태이다. 경주 마추왕릉지구 제 7구역 제 3호분⁶⁵⁾은 철판을 씌운 부분은 같지만, 복원하면 懸垂孔이 앞뒤로 뚫려 있는 것과는 달리 좌우로 뚫리게 된다.

54) 高森忠, 『前掲書』, 1937.

55) 北條善孝 外, 『前掲書』, 1992.

56) 文化財管理局, 『前掲書』, 1994.

57) 慶尙大學校博物館, 『前掲書』, 1990.

58) 慶尙大學校博物館, 『前掲書』, 1993.

59) 김정환 外, 『陝川臨溪里古墳群』, 國立晉州博物館, 1987.

60) 釜山大學校博物館, 『前掲書』, 1986.

61) 忠北大學校博物館, 『前掲書』, 1995.

62) 尹容鎭·金鍾澈, 『大伽耶古墳發掘調査報告書』, 高靈郡, 1979.

63) 金延鶴 外, 『前掲書』, 1980.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각 유형별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발굴된 자료를 근거로 하면 A유형인 부산 복천동 48호분, 김해 대성동 1호분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금속판 제작기술의 발달에 의해 A유형→C유형→D유형으로 상징할 수 있다. B유형은 A유형과 어느 일정한 시기를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품에서 알 수 있었다.

토기를 사용하여 각 유형들의 상호 선후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최병현은 典型樣式 신라식 고배의 초기 형식변화과정을 경주 황남동 109호분 3·4곽, 머주왕릉 제5구역 1호분, 同 제5구역 6호분, 황남동 110호분 순으로 추정하였다. 이 중에서 경주 황남동 109호분 3·4곽에서 출토된 고배와 똑같은 형식의 것이 부산 동래 복천동 21·22호분에서도 출토되었다. 이것에 대해 두 고분을 같은 시기로 상정하기보다는 동반되는 다른 토기를 들어 부산 복천동 21·22호분을 황남동 110호분에 가까운 시기로 편년지우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황남대총 남분을 위치지웠다.⁶⁴⁾

김용성은 부산 복천동 고분군 중에서 25·26호분과 35·36호분에서는 일렬투창고배가 출토되는데 반해 31·32호분에서는 교호투창고배가 출토된 점에 주목하였다. 또 부산 복천동 25·26호분에서 출토된 일렬투창고배가 김해 예안리 117호분, 경주 월성로 가6호분 등에서 보이는 점을 들어 부산 복천동 25·26호분과 35·36호분을 한 단계, 31·32호분은 그 다음 단계의 이른 시기, 21·22호분은 늦은 시기로 보았다.⁶⁵⁾

이희준은 부산 복천동 53호분과 39호분이 복천동 10·11호분보다 이르는 최병현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또 부산 복천동 10·11호분을 상대연대상으로 경주 황남대총 남분보다 빠르다고 하였다.⁶⁶⁾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연대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상대연대로 A유형에서 C유형까지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 복천동 유적에서 B유형의 복천동 35호분, 22호분 등이 C유형인 복천동 10호분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유형은 I형식, B유형은 II형식, C유형은 III형식, D유형은 IV형식, E유형은 V형식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64) 崔秉顯, 「新羅古墳 編年の 問題—慶州・月城路・福泉洞・大成洞古墳의 상대연대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30, 1993.

65) 金龍星, 『大邱・慶山地域 高塚古墳의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66) 李熙濤, 前掲書, 1998.

2. 分布的 樣相

5형식의 지역적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圖2, 3, 4, 5, 6)

I 형식 중에서 병부 상반부와 그 바로 밑에서 윤부 상반부까지 연결되는 철판을 각각 따로 대고 있는 형태는 김해지역과 부산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 두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고 하여 이 지역 특색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 시기까지는 아직 前단계의 공통된 양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II형식은 낙동강 동안의 경주, 창녕, 부산지역에서, 낙동강 서안의 합천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 형식은 병부 상반부에 씌우는 철판의 형태와 고정시키는 못의 배열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上圓下方의 철판과 가로로 2~3개의 못을 3~4줄 가진 형태이다. 경주 황남동 109호 3·4곽, 부산 복천동 22·35호분 출토품 등이 있다. 두번째는 방형 모서리에 각을 없앤 철판에 못을 7~8줄 이상 가진 형태로 경주 황오리 14호분 제 1부곽, 창녕 교동 2·3호분, 합천 옥전 28·95호분 출토품 등이 있다.

III형식은 I 형식 중에서 병부 상반부와 그 바로 밑에서 윤부 상반부까지 각각 따로 철판을 씌운 것에 대해 하나로 연결된 철판을 사용하고 있어 제작기법의 기술적인 발전으로 보고 싶다. 이것은 분포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과 합천, 청주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특히 합천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또 부산지역에서는 이제까지의 세 형식이 전부 출토되고 있어 기술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 복천동 10호분, 합천 옥전 67-A호분, 5호분, 35호분, 8호분, 91호분, 70호분, 82호분, M2호분, 청주 신봉동 93호분 출토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IV형식은 경주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형식의 분포는 II형식과 중복되면서 좀더 확산된 느낌을 준다. 경주지역에서는 황오리 14호분 제1부곽, 황남대총 남분·북분, 천마총, 식리총, 금령총, 인왕동 19호분 J곽 등이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창녕 교동 3호분, 합천 옥전 M1·M3호분, 고령 지산동 32호분, 청주 신봉동 80호·97-1호분 등이 있다.

V형식은 III형식과 IV형식보다 더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주 미추왕릉지구 제 7구역 3호분, 합천 반계재 가A호분, 고령 지산동 44-25호분, 청주 신봉동 60호분, 한양 백천리 1 3호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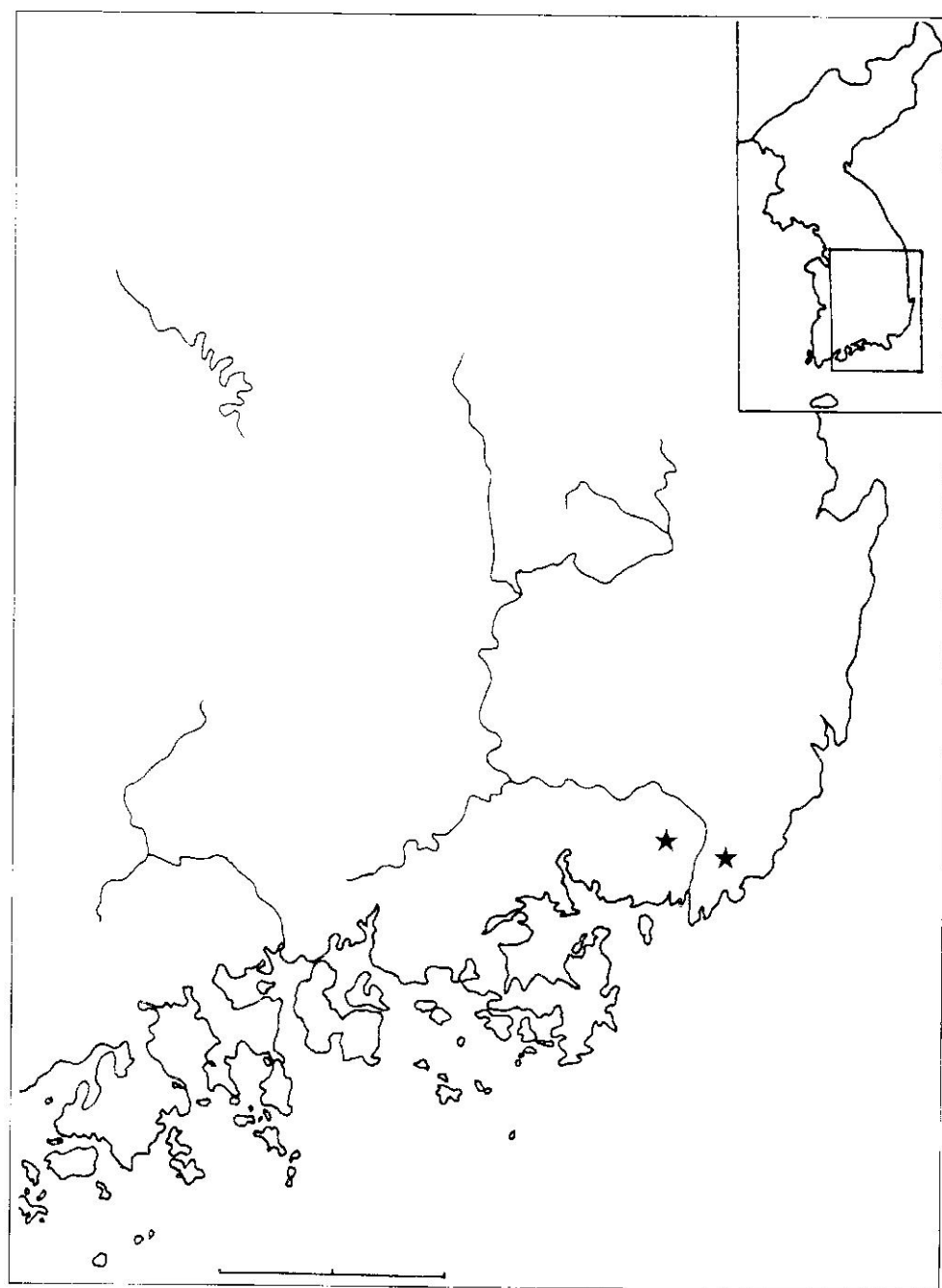


圖 2. I 型式の 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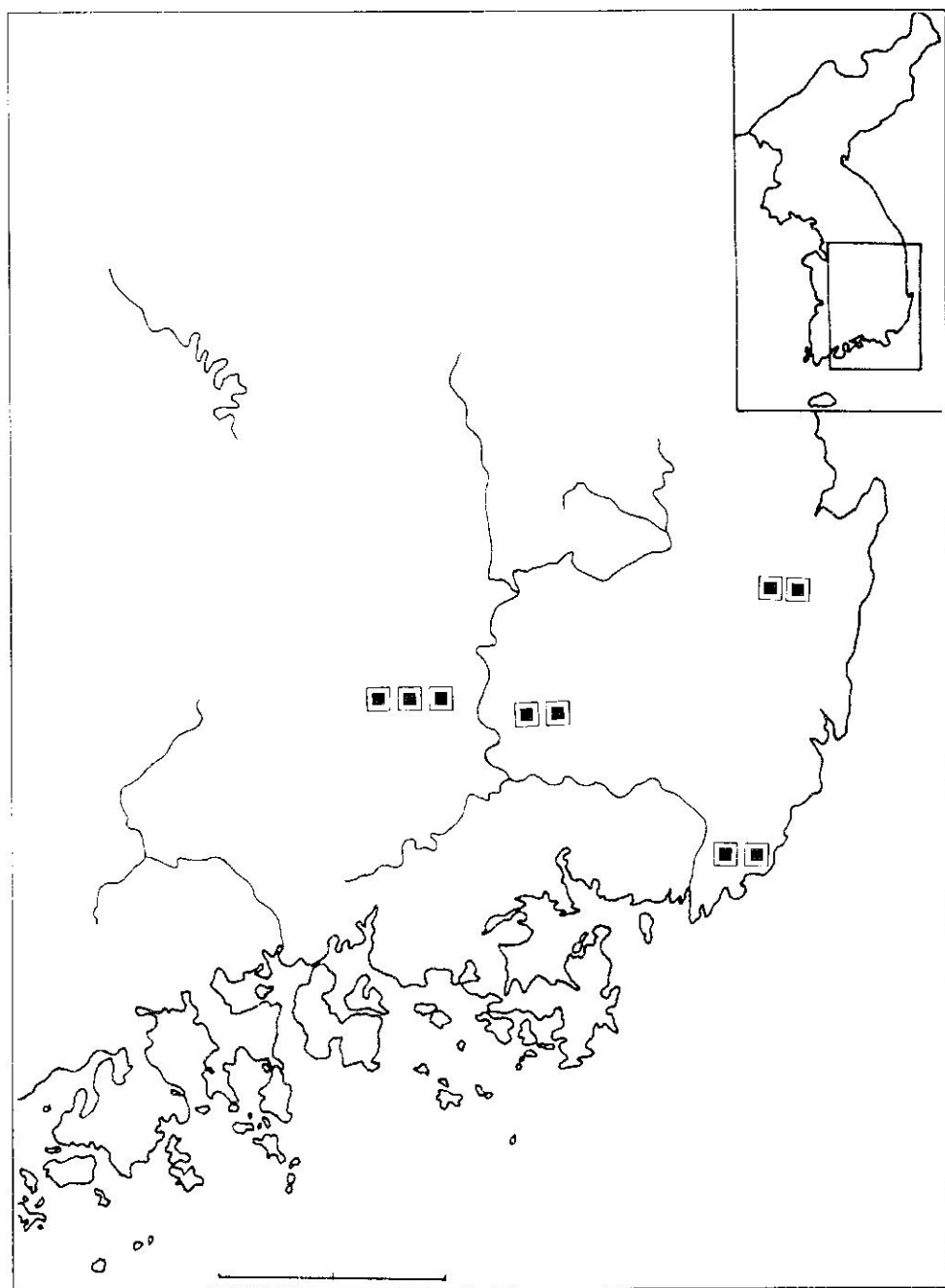


圖 3. II 型式의 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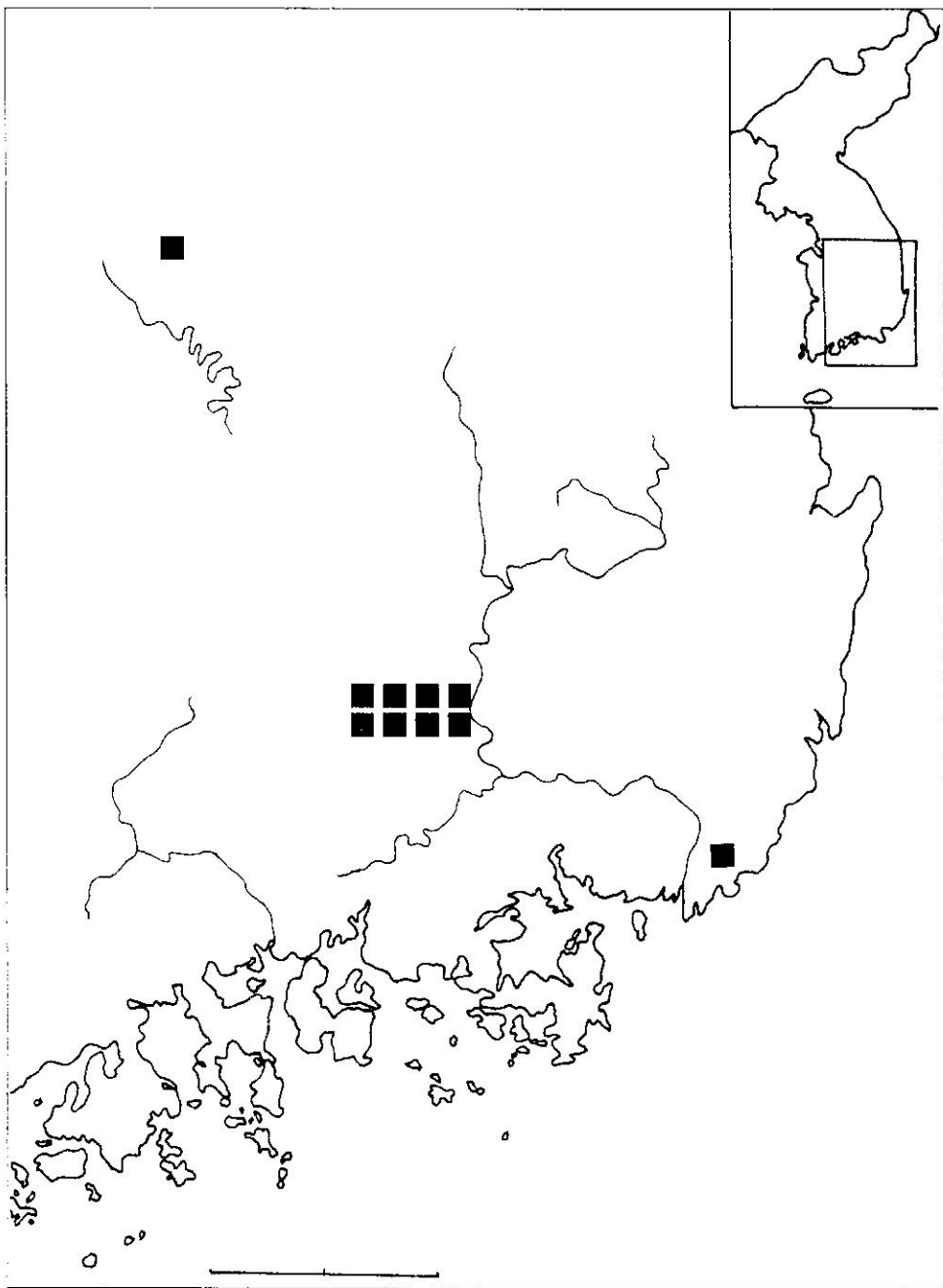


圖 4. III 型式의 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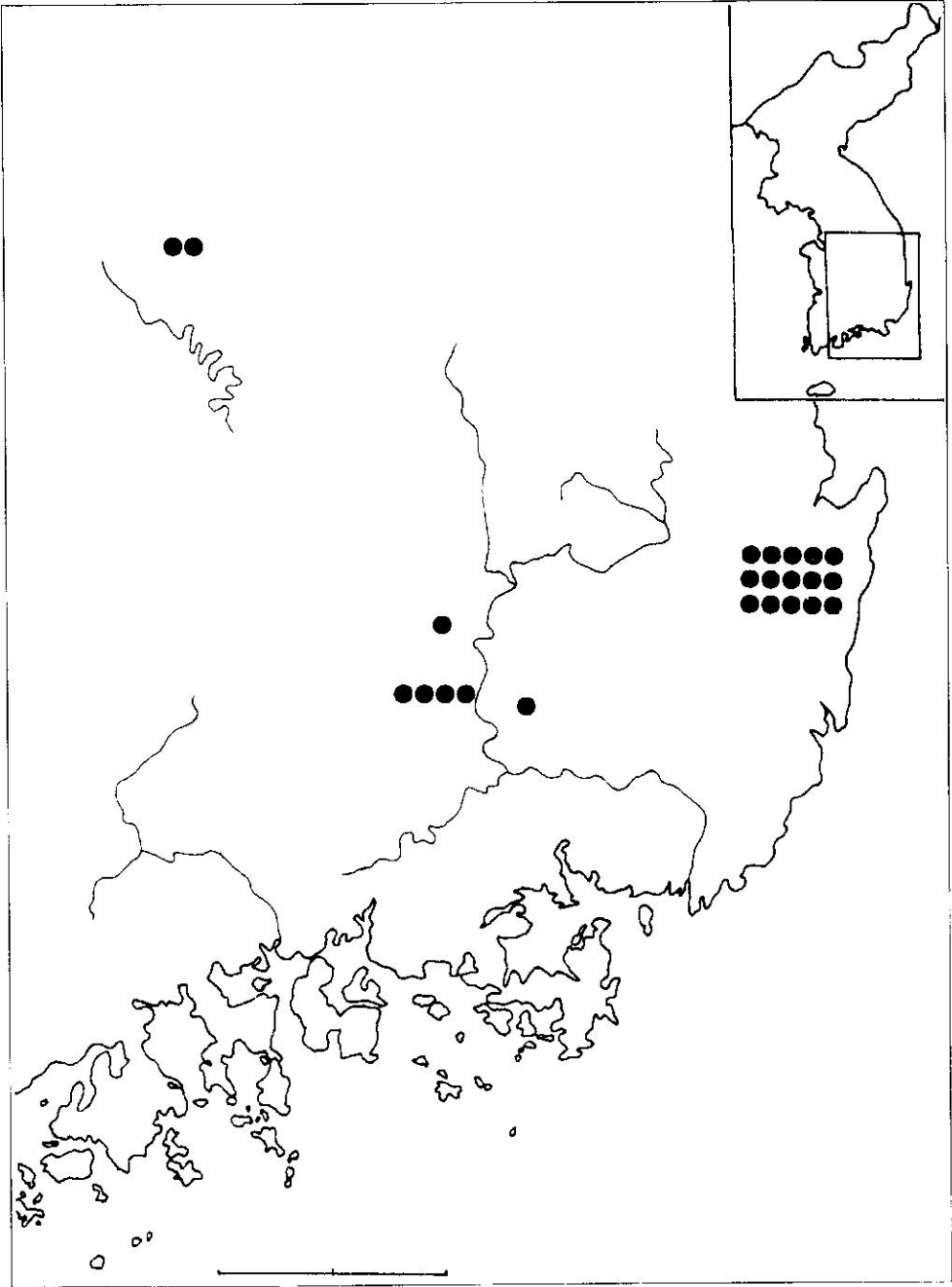


圖 5. IV 型式의 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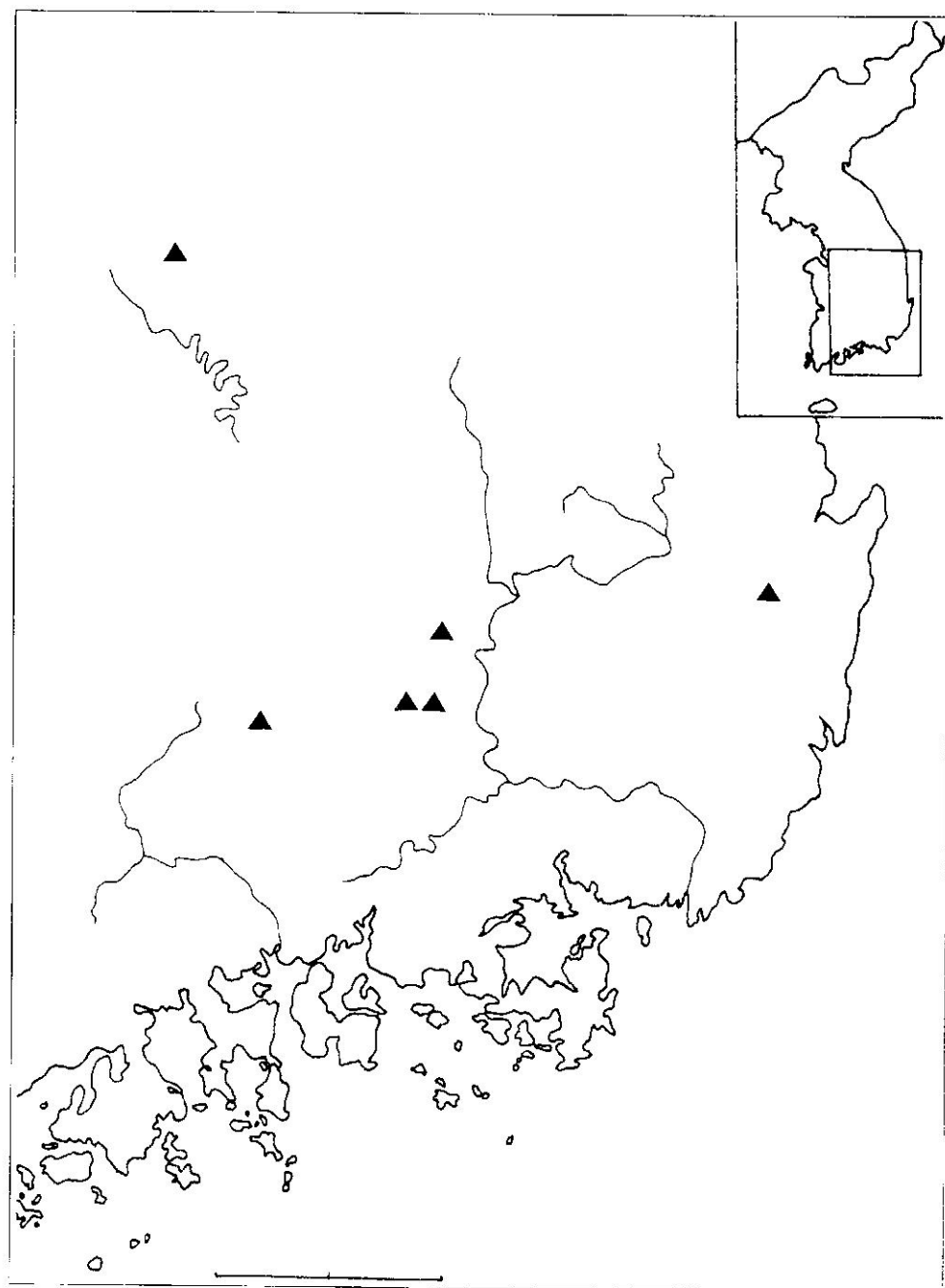


圖 6. V 型式的 分布圖

이러한 분포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I 형식→III형식→V 형식으로, II형식→IV형식으로 분포영역이 확산됨을 알 수 있다. I 형식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공통된 양식으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 같다.

I 형식→III형식→V 형식은 김해, 부산, 합천, 청주지역 중에서도 합천지역이 중심이다. 지역적인 특색으로 III형식을 낙동강 서안양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II형식→IV형식은 경주를 비롯한 부산, 창녕, 합천, 고령, 청주 등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II형식과 IV형식은 모두 경주를 중심으로 부산, 창녕 등 낙동강 동안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傳播

등자의 전체길이는 말 위에서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전체길이에서 병부·윤부가 차지하는 부분의 크기에 따라 등자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자를 제작하는 집단内에서는 전체길이, 전체길이에서 병부·윤부가 차지하는 부분의 크기, 금속보강법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여기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도면을 작성하였다.(圖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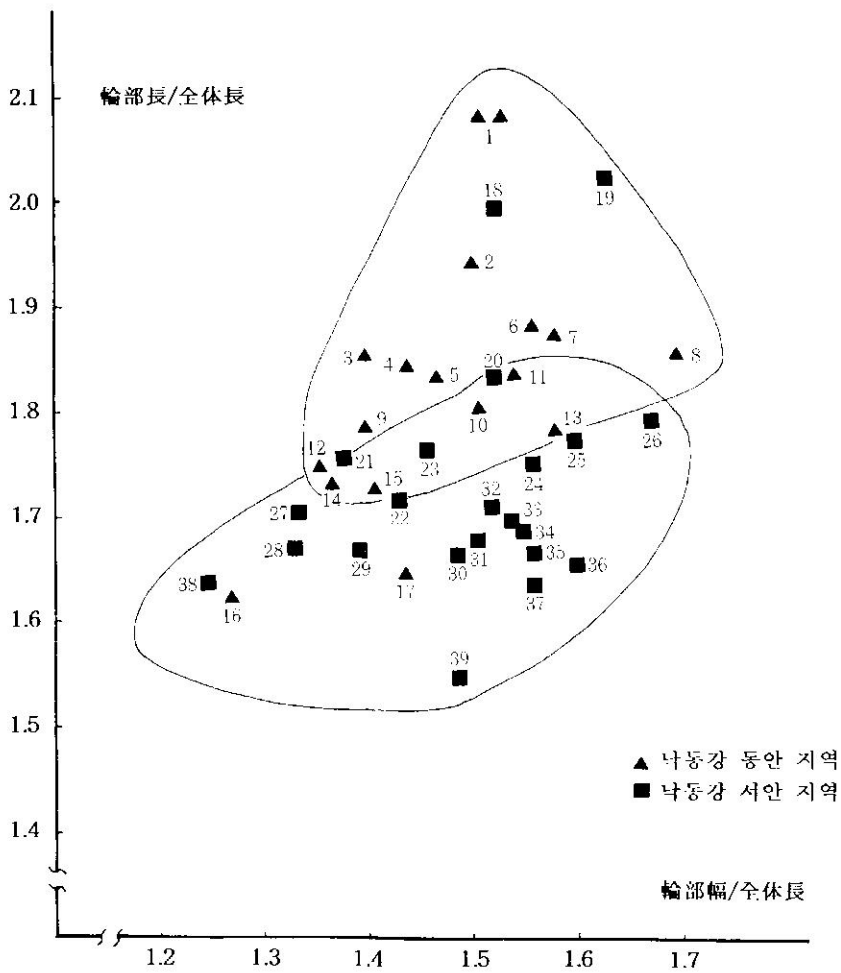
殘存狀態가 양호한 木心系 등자를 중심으로 X축을 윤부의 폭/전체길이, Y축을 윤부의 길이/전체길이라고 하였다. X축의 숫자가 커질수록 윤부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즉 橢圓形에서 점점 圓形화 되어가는 것을 나타낸다. Y축의 숫자가 커지면 전체길이에서 병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圖7을 비롯한 圖8, 9, 10은 낙동강 동안 지역과 낙동강 서안 지역의 출토품을 표시한 것이다.

경주지역은 전체길이에 대해 병부길이가 짧은 것에서부터 긴 것까지 다양한 반민 윤부 형태는 橢圓形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합천지역은 전체길이에 대한 병부길이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윤부 형태는 圓形에서부터 橢圓形에 이르고 있어 다양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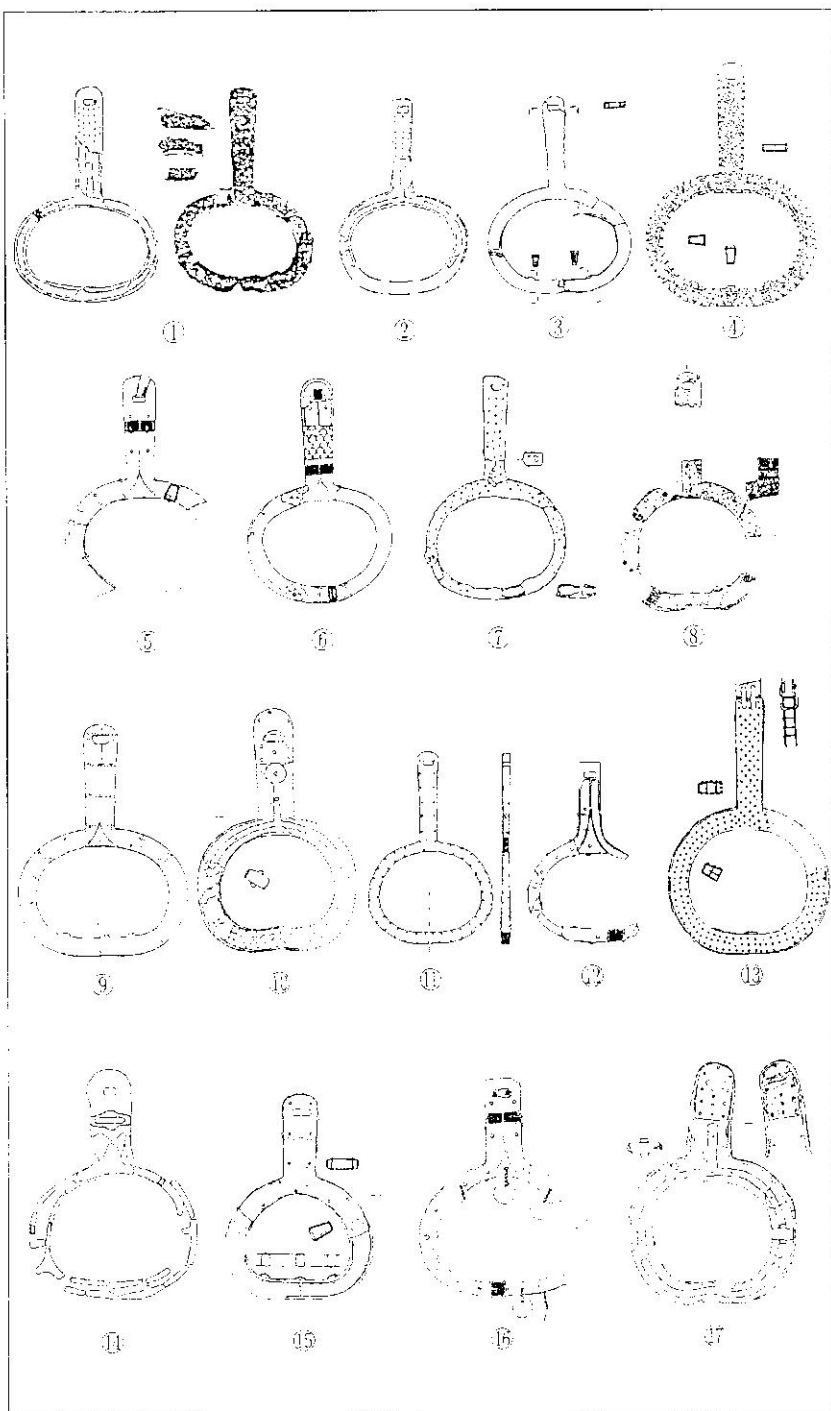
합천지역 출토품 중 경주지역 출토품과 근접하게 위치한 것에 주목하고 싶다. 먼저 옥전 28호분(圖 7.109)·95호분 출토품(圖 7.118)은 경주 황오리 14호분 제1부곽 출토품(圖 7.1)과 동일한 II형식에 속한다.

III형식인 옥전 67-A호분·5호분·35호분·8호분(圖 7.121)·91호분(圖 7.134)·70호분(圖 7.135)·82호분(圖 7.136)·112호분(圖 7.137) 중에서 옥전 5호분(圖 7.123)·35호분(圖 7.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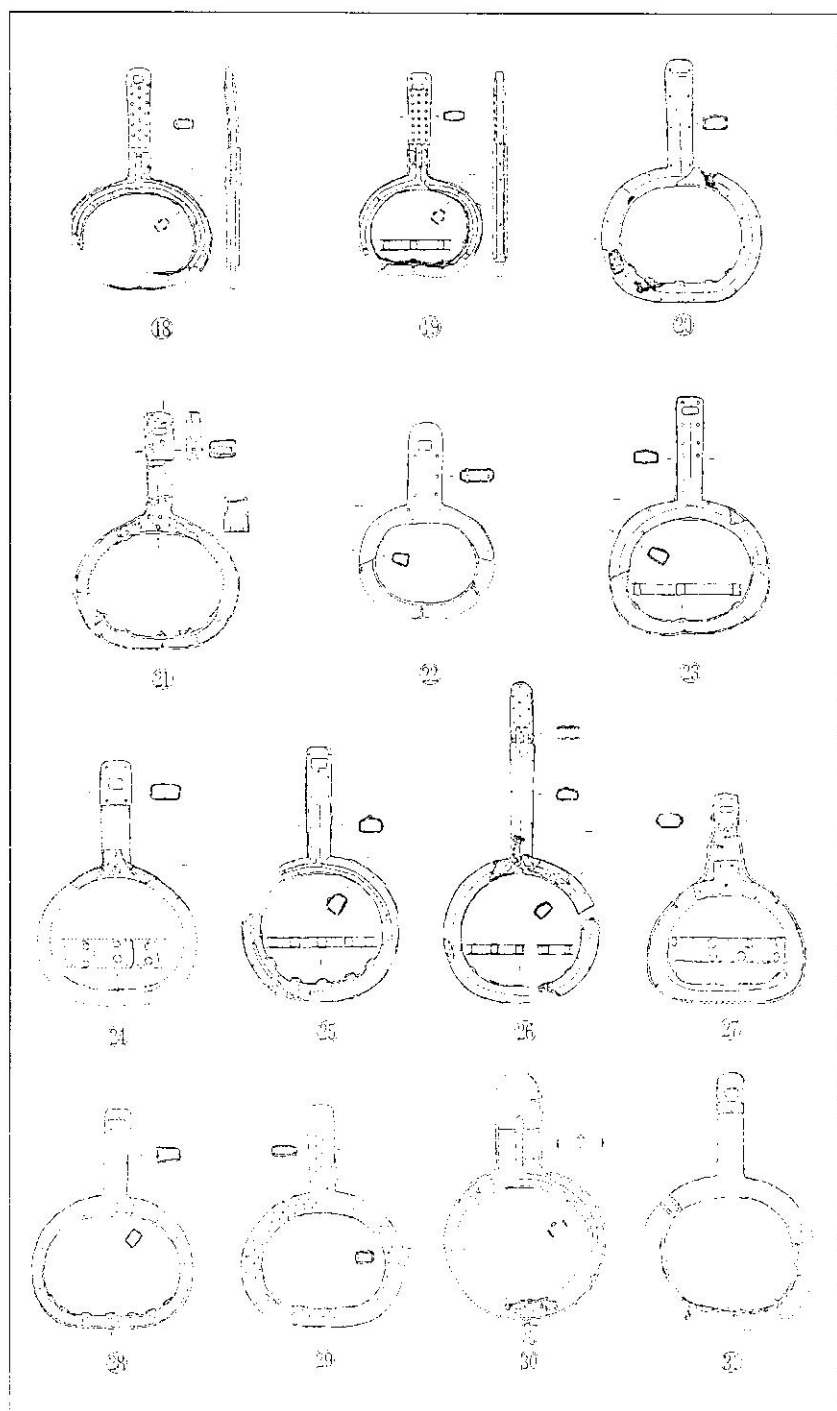
1. 皇吾里14號墳 第1副壙 2. 校洞2號墳 3. 天馬塚A 4. 皇南大塚 南墳(玉蟲) 5. 飾履塚B 6. 飾履塚A 7. 仁王洞19號墳 丁棚 8. 皇南大塚 北墳 9. 皇南大塚 南墳(金銅) 10. 福泉洞35號墳 11. 天馬塚B 12. 金鈴塚B 13. 皇南大塚 南墳(鐵板) 14. 皇南洞109號墳 4棚 15. 福泉洞10號墳 16. 金鈴塚A 17. 福泉洞22號墳 18. 玉田95號墳 19. 玉田28號墳 20. 池山洞32號墳 21. 池山洞14號墳 25右棚 22. 玉田67 A號墳 23. 玉田5號墳 24. 玉田M7號墳 25. 玉田M1號墳A 26. 玉田M1號墳B 27. 橋溪堤가A 號墳 28. 玉田M3號墳 29. 新鳳洞7 1號墳 30. 玉田68號墳 31. 新鳳洞33號墳 32. 玉田8號墳 33. 玉田M1號墳C 34. 玉田91號墳 35. 玉田70號墳 36. 玉田82號墳 37. 玉田M2號墳 38. 玉田35號墳 39. 白川里 3號墳

圖 2. 木心系 鈴子の 地域別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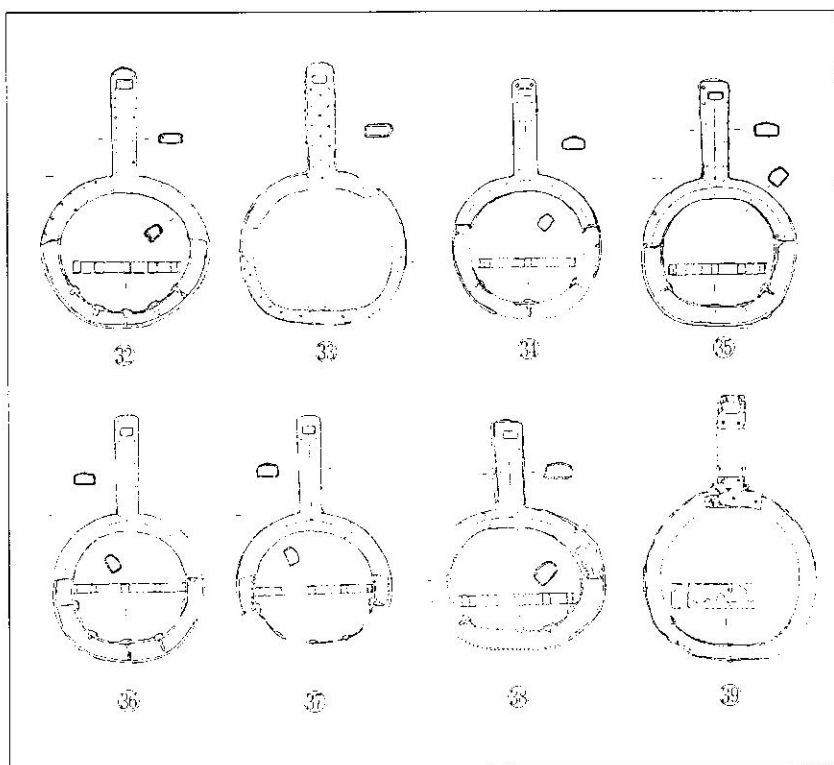
〈속서부동〉

圖 8. 洛東江 東岸地域 出土 木心系 鏡子



〈주조부록〉

圖 9 洛陽西華池出土之系鏡子



<속적부동>

圖 10. 洛東江 西岸地域 出土 木心系 鏡子

67-A호분(圖7-22)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길이에서 윤부가 차지하는 크기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例들은 윤부가 圓形인 반면 옥전 35호분 출토품은 橢圓形, 옥전 5호분 출토품 역시 圓形보다는 橢圓形에 가깝다. 이렇게 제작기법이 동일한 상태에서 형태(여기에서는 전체길이에서 병부·윤부가 차지하는 크기)가 다른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다. 이것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인 차이이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제작기법상으로는 거의 변화를 인정할 수 없는데 형태적으로 다른 것은 새로운 유형의 능자가 이 지역에 전파되었을 당시, 새로운 패턴자체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지역의 在地技術로 제작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이것은 토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이동 토기 양식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경주에서 元的으로 성립하여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는 說과 중심지가 없이 지역 상호간에 樣式的 選擇性이 작용하면서 성립하였

다는 說⁶⁷⁾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일시에 성립한 듯이 보는 반면 후자는 비교적 서서히 형성되어 갔다고 보는 점이 대비되는데 양식 형식 속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후자의 시각이 옳은 것 같다. 原新羅 양식이라 할 경주 양식 토기가 먼저 성립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역 기존토기에 ‘양식적 選擇壓’이 작용하여 汎以東 樣式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⁶⁸⁾

옥전 35호분 출토품은 비유·형태면에서 황남대총 남분 靑銅鏡子⁶⁹⁾와 매우 유사하다. 못까지 같이 주조된 靑銅鏡子는 그 당시 성행하고 있던 木心系 鏡子를 모텐로 하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이것은 이미 황남대총 남분 단계부터 존재하고 있던 유형이 옥전 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에 받아들여진 것은 옥전 35호분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옥전 35호분 출토품은 비유면이나 형태면에서는 황남대총 남분 靑銅鏡子와 거의 동일하지만 陝川地域 (좁은 의미에서는 옥전 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에서 계속 사용되어 오던 금속보강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시기적으로 경주 황남대총 남분과 합천 옥전 35호분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창녕 교동 3호분은 토기 연대가 5세기 前半 중반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등자에 관해서는 같은 출토상황으로 경주 황오리 14호분 제 1부곽을 인정하면서 그 연대를 5세기 중엽⁷⁰⁾으로 보았다. 이 연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창녕을 신라지역으로 인정하는 것과 두번째는 경주지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생산품이든지 기술적인 면—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시기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황오리 14호분 제 1부곽의 연대를 조금 이른 단계로 보아야 할 것 같다.

IV형식의 대부분은 낙동강 동안 지역에 속하고 기본적인 수치도 거의 비슷해서 그래프의 중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鏡子 각 부분의 치수가 어느 정도 규격화되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⁷¹⁾ 출토품(鐵板)(圖7-13)의 운부는 圓形에 가깝고 병부에 못을 3열로 각각 열을 교차되게 박았다. 합천 옥전 M1호분⁷²⁾ 출토품(A)(圖7-25)·(B)(圖7-26)는 기존의 금속보강법(중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2列의 못을 박음)을 사

67) 崔秉鉉, 『前掲書』, 1992.

68) 李盛廣, 「洛東江東岸樣式土器에 대하여」, 『제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회지』, 1993.

69) 李熙春, 『前掲書』, 1998.

70) 文化財管理局, 『前掲書』, 1994.

71) 申敬澈, 『前掲書』, 1989.

72) 文化財管理局, 『前掲書』, 1994.

73) 慶尙大學校博物館, 『前掲書』, 1992.

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천 옥전 M1호분 출토품B의 경우는 鍍金具 연결부분이 구멍으로 처리되어 있을 만큼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鐵板)과 유사하다.

경주 인왕동 19호분 J과 출토품은 표면 전체에 銀製못을, 경주 황남대총 북분⁶⁴⁾ 출토품은 금동판에 鐵製못을, 경주 식리총 출토품⁶⁵⁾는 鱗狀文을 깎아 장식했다. 이것은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鐵板)이 표면 전체에 못을 박고 있는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경주 황남대총 남분의 靑銅鎧子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못까지 같이 주조하였다. 또 합천 옥전 M1호분 출토품⁶⁶⁾과 청주 신봉동 고분군 중에서 97-1호분, 80호분 출토품 역시 표면 전체에 못을 박았다.

圖7에서 합천지역 출토품에 대한 장병계, 단병계라는 단어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싶다. 옥전 67-A호분 출토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길이가 25~29cm 사이에 해당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전체길이에 대한 병부길이의 비율은 경주 황남동 109호 3·4와 출토품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윤부 형태면에서 살펴보면 합천 옥전 68호분, 8호분, M1호분, M2호분, 70호분, 91호분, 82호분 등과 함양 백천리 1호분 출토품은 圓形이다. 그 외 옥전 35호분, M3호분, 28호분, 95호분, M7호분과 고령 지산동 44-25호분 출토품은 橢圓形이고 옥전 5호분 출토품은 원형과 타원형의 중간형태이다. 반계계 가A호분 출토품은 三角形에 가깝다.

옥전 28호분·95호분 출토품의 윤부 형태를 보고자는 倒하트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복천동 35호분·22호분 출토품도 하트형 윤부를 가지고 있다. 輪部가 下方이 내측으로 돌출하여 倒하트형을 이루는 것은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木心을 구부려 병부에서 합칠 때 그 接合이나 이후의 形態 조정에 유리한 것은 柄部에서 左右外側으로 彈力을 가진 木材인 것이다. 따라서 목재의 選定過程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여 굽어진 나무의 외측면—彈力이 있는 外皮를 포함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輪部の 內面이 되도록 구부린 결과, 자연히 倒하트를 이루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⁶⁷⁾ 그래서 옥전 28호분과 95호분은 타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산 복천동의 35호분, 22호분 출토품은 圓形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복천동 10호분에서는 三角形과 圓形으로 추정되는 것이 출토하였다. 창녕지역에서는 橢圓形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주지역 출토품은 대부분 橢圓形이고 황남대총 남분에서 圓形이, 금령총

64) 金正基 外, 『皇南大(皇北墳)』, 1985.

65) 金東益, 『前掲書』, 1995.

에서는 三角形의 예도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윤부 형태에 따른 출현시기를 살펴보면 낙동강 동안 지역에서는 타원형→원형→삼각형이고 낙동강 서안 지역 역시 원형→타원형→삼각형이다. 그렇지만 타원형의 출현시기는 낙동강 동안 지역이 훨씬 앞선다.

V. 시대적 배경

『三國史記』신라본기에는 가야국 관계기사가 전쟁 및 교빙관계 위주의 것이 보이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탈해왕 21년(77)부터 奈解王 17년(213)까지 가야국 관계기사가 12회에 걸쳐 보이다가 끊어지고 다시 소지왕 3년(481)부터 진흥왕 23년(562)까지 가야국 기사가 8회 정도 보인다.

먼저 3세기 전반에 대한 기록인 『三國志』魏書 韓傳에 의하면 변진한은 잡기하며 의복·거처가 진한과 같고 언어·법속도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다. 진·변한의 문화성격이 이처럼 공통적인 양식을 띠게 된 이유는 진·변한을 이루는 각 단위 정치세력인 소국들의 문화기반 및 수준이 서로 비슷하고 상호간의 정치적인 대립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신라는 3세기 단계의 진·변한문화 공통기반을 토대로 한 위에 고구려 계통의 색채를 가미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전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居西干, 次次維, 尼師今, 麻立干, 王으로 이어지는 王號의 변천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지배체제의 변화에 따라 지배자의 칭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왕호의 변화는 곧 신라사회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⁵⁶⁾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적석목곽분의 등장시기를 대략 4세기 중엽으로 추정한다면 신라의 왕호가 尼師今에서 麻立干으로 바뀐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로국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領土나 住民의 量的인 증가가 있었고 그에 따라 지배체제상의 質的인 변화가 수반되었음을 대변하고 있다.⁵⁷⁾

마립간의 서지인 내물왕이 등장하던 4세기 후반의 국제정세는 한마디로

56) 李丙茂 「新羅의 起原問題」, 『史學學報』8, 1937, 『韓國古代史研究』, 1976.

57) 三品弘英 「麻立干の原義を尋ねて」, 『朝鮮學報』13, 1958.

58) 朱甫敦 「麻立干時代 新羅의 地方政治」, 『嶺南考古學』19, 1986.

고구려·신라연합과 백제·왜·가야연합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구려는 소수림왕·고국양왕대에 걸쳐 백제를 공략하였으나 백제의 반격으로 양국은 약 20여 년간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구려는 백제 견제책의 일환으로 신라를 끌어들이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백제 肅城王가 주민 300여 호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자 백제는 그의 송환을 요구하였는데 신라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⁸⁸⁾ 내물왕 22년(377)과 26년에 신라사신이 前秦에 파견되고 있는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양국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⁸⁹⁾ 신라사신이 前秦에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구려의 도움이 컸던 것을 감안해 볼 때, 당시의 양국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당시 신라의 외교정책이 고구려와의 연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미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양국의 관계 속에서 고구려는 광개토왕 2년(392) 신라에 修好使를 파견하였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의 강성함을 인정하고 寶璽를 인질로 고구려에 파견하였다. 고구려로서는 신라와의 우호관계를 통하여 백제를 견제할 수 있었으므로 대백제공략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신라로서도 어렵게 즉위한 내물왕의 정치적 안정확보를 위해서는 고구려의 후방이 필요하였던 국내사정이 있었다.⁹⁰⁾ 양국 사이의 이러한 이해의 일치에 따라 성립된 우호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에서 백제와 왜·가야 연합군이 신라에 침범하자 신라왕은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광개토왕은 즉위 10년(400)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신라를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고구려는 신라 구원 및 수호를 명분으로 삼아 신라영토 안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문헌적 상황을 고고학적 자료에서 보면 먼저 고구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安陽 孝民屯 154호묘, 韓陽 袁公子 東晉代墓, 集安 七星山 96호묘 출토품 등이 있다. 앞의 두 예는 중국자료이지만 고구려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진다. 동지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복싱을 외장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시술하고자 한다.(圖11. 참조)

먼저 河南省 安陽의 殷墟지구에 있는 殷墟문 74AGM 154호묘⁹¹⁾는 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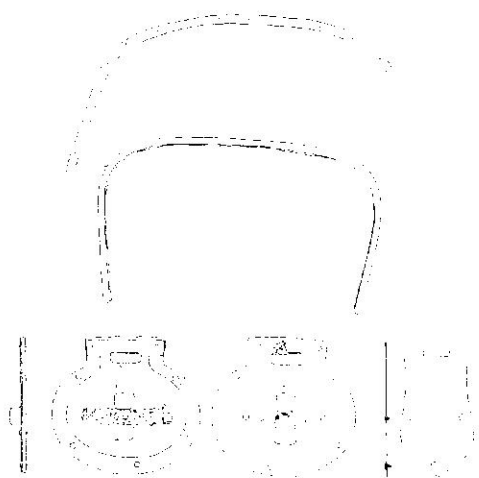
88) 『三國史記』卷 3, 新羅本紀 3, 내물마립간 18년.

89) 『資治通鑑』卷104, 晉紀 26, 孝武帝 太元 2年.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내물이사금 26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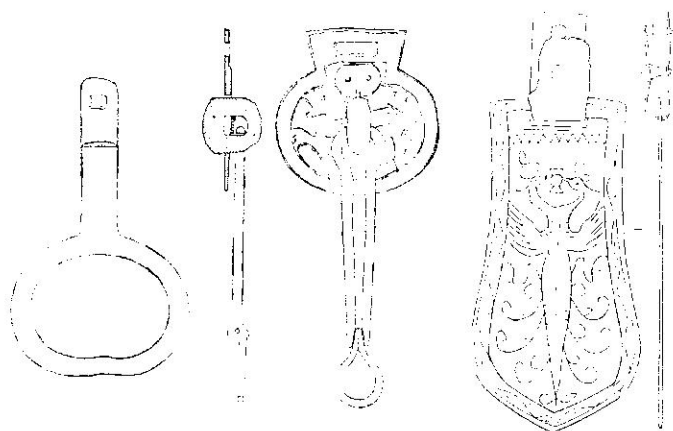
90) 李可說, 『韓國史 古代篇』, 復校學會, 1959.

91)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사이의 力麗鎧 變化에 對한 考察」, 『東方學志』, 1981.

9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安陽孝民屯曹魏錢窖報告」, 『考古』19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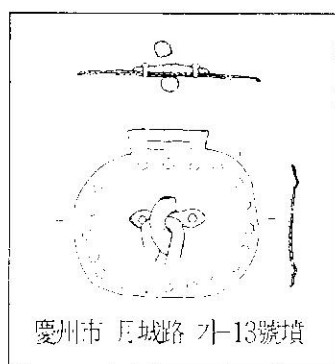
朝陽縣 三台成墓



安陽 孝民屯晉墓



朝陽 袁台子東晉壁畫墓



慶州市 瓦城路 가-13號墳

圖 11. 中國出土 木心系 鏡子와 同伴遺物

기 初에서 중엽경에 해당되며 출토된 등자는 單鏡으로 두께 0.4cm의 靑銅으로 만들어 표면에 鍍金한 것이다. 다음은 遼寧省 朝陽縣 袁台子村의 東晉代 壁畫墓 출토품⁸³⁾으로 역시 4세기 初에서 중반경에 해당되며 목심표면에 가죽을 덮었다.

이 외에 최근 보고된 자료로서 遼寧省 朝陽縣 三合屯村 古墳에서 출토된 鏡子 역시 木心金銅板被이다.⁸⁴⁾ 파손 복원된 것으로 전체길이는 약 30.5cm이다. 목심에 금동판을 씌웠으나 현재 목심은 남아 있지 않다. 병부의 길이는 약 17cm 이고 병부 전체에는 10개 정도의 못구멍이 남아 있다. 圓形을 띠고 있는 윤부에도 전체적으로 못을 박은 흔적이 있고 답수부에는 突起가 있다. 보고자는 이 고분을 安陽 孝民屯晉墓, 朝陽 袁台子壁畫墓와 같은 4세기 초에서 4세기 중엽경으로, 16國時代의 前燕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여기에서 출토된 재갈의 鏡板은 경주 원성로 가-13호분 출토품⁸⁵⁾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집안 칠성산 96호묘⁸⁶⁾ 출토품은 표면 전체에 金銅板을 씌웠다. 이 고분의 연대에 대해서 보고자는 4세기 중반이전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목심표면 전체를 금속판(혹은 가죽)으로 씌우는 기법이 경주지역의 IV형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중국방면에서 정치적 안정으로 西進에 한계를 느낀 고구려가 장수왕 15년(427) 평양천도이후 적극적으로 남진정책을 추구하자 신라가 받는 압력도 실로 적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눌지마립간은 비록 고구려의 힘을 빌려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 후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눌지마립간 17년(433) 백제가 먼저 화친을 요청해 오자⁸⁷⁾ 이에 응하였다. 그 이후 양국의 관계는 백제가 良馬와 白鷹을 보내서 신라는 황금과 明珠로 보답하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⁸⁸⁾ 이 교섭을 통하여 백제는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었고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다.

장수왕 43년(455) 고구려가 백제를 침범하자 신라 눌지왕이 백제에 구원병을 파견하면서⁸⁹⁾ 시작된 양국의 군사동맹은 이후 자비왕 18년(475) 장수왕의

83) 遼寧省 博物館文物隊 外, 「朝陽袁台子東晉壁畫墓」, 《文物》1984-6.

84) 于俊玉, 「朝陽三合屯出土的前燕文物」, 《文物》1997-11.

85) 遼州博物館 外, 「遼州市 月城路古墳群」, 1990.

李熙遠, 「경주 月城路 가-13호 積石木槨墳의 연대와 의의」, 『鎮西 尹容鎮教授還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6.

86)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縣前座高句麗積石槨墓清理」, 《考古》1979-1.

87)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17년 및 권 25, 百濟本紀 3, 비유왕 7년.

88)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17·18년 및 권 25, 百濟本紀 3, 비유왕 7·8년.

89)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39년.

백제 공격시에 신라가 1만명의 구원병을 파견해 주었고³⁰⁾ 또한 장수왕 69년 고구려의 신라 침입시에도 백제가 가야와의 연합군을 편성하여 파견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라와 백제의 관계는 청주 신봉동 80호분이나 97-1호분 출토 등자로 그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과는 달리 가야지역은 3세기 단계의 진·변한 문화 공통기반을 큰 수정 없이 그대로 계승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는 당시 백제의 영향력의 성격이 낙랑—가야—왜로 연결되던 고대 상업적 교역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그쳤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백제는 4세기 후반에 중국 남조 동진과의 교역에서 얻은 선진물자를 가지고 한반도 서남해안—일본열도를 연결하는 교역로를 장악하여 신라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야는 그 중개역을 맡으면서 자기 지역에 대한 패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백제의 대립에 따른 신라·가야의 분화 발전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주위 변화로 광개토왕이 낙동강 하류까지 내려오므로써 가야지역은 타격을 입고 약화되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사이에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연맹은 해체된다. 문화중심이 경남 해안지대에서 고령을 비롯한 경상 내륙 산간지방으로 이동되었다. 또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으로 전기 가야연맹에 속해 있던 지역 중에서 동래, 창녕, 성주, 개령 등이 제외되었다.³¹⁾ 이것은 김해 등의 중심세력은 현저히 퇴락하고 동래·성주 등의 일부 세력은 경주 중심으로 하는 신라로 편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토기연구에 있어서 지적했던 것처럼 낙동강을 정계로 東·西兩岸의 양식차라고 하는 것이 현저하여 각 정치체의 小地域樣式이라는 것은 미미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성주, 창녕, 부산, 김해, 경주 지역 등에는 소지역양식이 분포하는데 이들 사이에는 相異性보다 相似性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洛東江 동안양식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³²⁾ 고령, 함천, 함안 등지에도 소지역양식이 분포함은 물론이며 역시 이들 사이에도 類似度가 非類似度를 능가한다고 하여 이를 洛東江 서안양식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중에서 함천지역 옥전고분군의 토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0)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4, 明津王 즉위년.

31) 金泰植, 「가야사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韓國古代史論叢』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1.

32) 李殷昌, 「伽耶地域 土器의 研究」, 『新羅伽耶文化』2, 1970.

李盛昱, 「1 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5, 1993.

이성주는 옥전고분군의 상대서열을 옥전 68호분·47호분→同38호분→同31호분→同M1호분·M2호분→同69호분·81호분으로 보는 과정에서 합천지역의 서안양식토기는 적어도 5세기초부터 시작하여 5세기말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았다.⁹³⁾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합천지역화된 서안양식토기가 주로 中下位封土墳 및 小型墳에는 일정비율로 매납되거나 大型墳의 副葬土器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합천지역의 경우도 분명히 생산체계의 조직화가 있었고 지역적 양식의 정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재지양식 토기를 권력의 중심에서 매장 의례에 사용하는 것은 기괴하고 오히려 창녕지역이나 고령지역에서 유입된 토기를 선호하여 수장묘에 매납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구체적 예는 합천 옥전 23호분 출토토기 중에서 二段交互透窓 고배가 있는데 보고자는 이것을 신라양식으로 인정하고 창녕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기의 흐름과 함께 옥전 28호분, 95호분에서 출토된 목심계 등자 II형식과 창녕 고동 2호분, 3호분에서 출토된 II형식은 서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옥전 M1호분에서는 창녕계 토기가, 扁圓魚尾形 杏葉과 함께 복심계 등자 IV형식이 출토되고 있다.

다시 문헌으로 돌아가면 가야는 481년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신라 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다시 彌秩夫(홍해)로 진군하는 것을 백제와 함께 원병을 보내 신라군을 도와 막았다고 한다.⁹⁴⁾ 490년대에 들어 신라는 백제 동성왕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공동 대처하는 한편 그 허약함을 틈타 추풍령의 안팎지역에 축성하는 등 팽창하고 있었다. 그리고 496년 가야는 신라에게 白雉를 보내⁹⁵⁾ 호의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또 일본서기 신공기 47년조에는 沙比新羅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는 양산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신공기 기사의 연대를 4세기 초(367년)로 보는 경우 양산이 그때에는 이미 신라였을 뿐 아니라 沙比라는 지역명을 칭한 셈이다.

경주, 양산간의 교류는 동래지역을 제외한 입장에서는 성립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동래와 양산은 서로 커다란 산과 하천으로 분리된 지역이 아니고 人文地理學的으로 볼 때 동일 生活圈이기 때문이다.

93) 李盛周, 『新羅: 伽耶社會의 起源과 發展』, 學研文化社, 1998.

94)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소지마립간 3년 3월.

95)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소지마립간 18년 2월.

VI. 맺음말

이상과 같이 목심계 등자를 낙동강 동안과 서안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분포상황에서 I 형식→III형식→V 형식으로, II 형식→IV형식으로 분포영역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I 형식이 부산, 김해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마구의 원류를 가야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진·변한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I 형식은 II형식과 어느 일정한 시기 공동된 양식으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I 형식→III형식→V 형식은 김해, 부산, 합천, 청주지역 중에서도 합천지역이 중심이다. 지역적 특색으로 III형식을 낙동강 서안양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I 형식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4세기대에 해당되는 부산 복진동 48호분과 김해 대성동 1호분 출토품 등이 있다. III형식에는 합천지역의 옥전 67-A호분을 비롯한 8호, 70호분 등 다수의 출토품이 여기에 속하며 5세기 초엽경부터는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II형식이 출토된 합천 옥전 28호분과 95호분은 5세기 중반 이후로, IV형식이 본격적으로 출토되는 합천 옥전 M1호분과 M3호분은 5세기 후엽으로 상정할 수 있다.

II형식→IV형식은 경주를 비롯한 부산, 창녕, 합천, 고령, 청주 등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II형식과 IV형식은 모두 경주를 중심으로 부산, 창녕 등 낙동강 동안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에서 II형식은 황남동 109호 3·4곽에서 비롯되어 황오리 14호분 제 1부곽, 황남대총 남분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황남동 109호 3·4곽은 4세기 말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황오리 14호분 제 1부곽과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II형식과 IV형식이 공반하고 있다. 따라서 IV형식은 5세기 전엽경에는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낙동강 동안과 서안지역은 서로의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한편 상호간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동안지역의 木心系 등자가 서안지역에 처음 전파되었을 당시에는 새로운 패턴은 받아들여졌지만 금속보강법은 재지기술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적인 면에서 금속판의 형태와 보강법까지 채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심계 등자와 목심계 등자가 출토되고 있는 묘제와의 상호관계를 출토예가 많은 경주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주지역에서 등자가 출토되는 遺構는 모두 積石木槨墳이다.

반면, 경주지역과 유사한 鐙字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창녕 고동 고분군의

묘제는 모두 横口式石室墓이다. 그 중에서 창녕 교동 3호분을 보면 木槨墓 단계에서 石室墓 단계로 직접 변화·발전되는 과도기적인 것이 발견되었다.⁴⁶⁾ 이러한 사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조사된 경주의 주변지역인 울산, 양산, 창녕, 대구, 성주, 안동 등에서 모두 横口式石室墓가 일찍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들 新羅 墓制는 積石木槨墳이라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횡구식석실묘가 출현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지역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적석목곽분의 분포범위는 극소수 지역에 밀집해 있다. 경주지역은 확실하게 신라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경주지역만이 신라의 전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적석목곽분이 사용되고 있을 때 그 주변지역에서는 어떤 묘제가 채택되고 있었을까. 경주의 외곽지대에서는 창녕 교동 고분군과 같이 횡구식석실묘가 사용되었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고 싶다.

그리고 합천 옥전 고분군을 살펴보면 8호분, 70호분, 82호분은 木槨墓이고 여기서는 모두 III형식이 출토되고 있으며, 28호분과 95호분은 II형식이 출토되고 있지만 기존의 묘제인 목곽묘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IV형식이 출토되는 M1호분과 M3호분은 竖穴式石槨墓이지만 28호분과 M1호분에서는 동일한 재지적 양식의 환상형 경관 재갈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합천 옥전 고분군에 있어서는 II형식이 도입되어도 묘제는 그대로 목곽묘를 사용하고 있으나 IV형식이 도입되면서 묘제는 수혈식석곽묘로 바뀌는데 이것은 등자의 제작기술의 변화와 묘제를 구축하는 방법의 변화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V형식이 출토되고 있는 합천 옥전 M7호분 역시 수혈식석곽묘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V형식이 출토되고 있는 합천 반계재 가A호분, 함양 백천리 1-3호분 모두 수혈식석곽묘이다.

參考文獻

1. 報告書

慶尙大學校博物館, 『玉田古墳群 I—木槨墓—』, 1988.

46) 石室은 먼저 土坑을 파고 墓腔을 만들고 그 속에 木槨을 끼서 墓室을 구성하였으며 木槨의 木槨間에는 石塊을 쌓고 床面에도 역시 床石을 配置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다.(沈奉謙 外, 『前編』, 1992.)

- _____，『玉田古墳群Ⅱ—M3號墳—』，1990。
- _____，『玉田古墳群Ⅲ—M1,M2號墳—』，1992。
- _____，『玉田古墳群Ⅳ—M4,M6,M7號墳—』，1993。
- _____，『玉田古墳群Ⅴ—M10,M11號墳—』，1995。
- _____，『玉田古墳群Ⅵ—23・28號墳—』，1997。
- 慶星大學校博物館發掘調查團，『金海 大成洞古墳群 第2次 發掘調查概要』，1991。
- 慶州博物館 外，『慶州市 月城路古墳群』，1990。
- 國立博物館，『皇吉里 4・5號墳，皇南里破壞古墳發掘調查報告』，1964。
- _____，『雙床塚 馬塚 138號墳調查報告』，1955。
- 金東鎬，『咸陽上栢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東亞大學校博物館，1972。
- 金載元，『慶州 路西里 壺杆塚斗 銀鈴塚』，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1946。
- 金載元・尹武柄，『義城塔里古墳』，國立博物館，1962。
- 金正基 外，『天馬塚』，1974。
- _____，『慶州皇南洞 98號墳(南墳)發掘略報告』，1976。
- _____，『皇南大塚(北墳)』，1985。
- 김정완 外，『陝川礪溪堤古墳群』，國立晉州博物館，1987。
- 金廷鶴 外，『味鄒王陵第七地區古墳群發掘調查報告』，『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書』第二輯，1980。
- 金鍾澈，『高靈池山洞古墳群』，啓明大學校博物館，1981。
- 金宅圭・李殷昌，『皇南洞古蹟發掘調查概報』，1975。
- 梅原末治，『慶州金鈴塚飾隈塚發掘調查報告』，大正十三年度古蹟調查報告，1932。
- 文化財管理局，『慶州皇吾洞 1・33號 皇南里 151號古墳發掘調查報告』，1969。
- _____，『皇南大塚(南墳)』，1994。
- 釜山大學校博物館，『咸陽白川里 1號墳』，1986。
- _____，『東萊福泉洞古墳群Ⅱ』，1990。
- 小川敬吉，『梁山夫婦塚と其遺物』，1927。
- 沈奉謙，『梁山金鳥塚・夫婦塚』，東亞大學校博物館，1991。
- 沈奉謙 外，『昌寧校洞古墳群』，東亞大學校博物館，1992。
- 嚴永植・黃龍潭，『慶州 仁旺洞(19,20號) 古蹟發掘調查報告』，1974。
- 有光教一，『慶州皇南里 第 82號墳』，昭和六年度古蹟調查報告，1935。
- 尹容鎮・金鍾澈，『大伽耶古蹟發掘調查報告書』，高靈郡，1979。
- 李殷昌，『味鄒王陵地區第10區域皇南洞第110號墳發掘調查報告』，『慶州地區古墳發掘調查報告書』1，1975。

- , 『味鄒王陵地域 A地區 第 3號墳』,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書』2, 1980.
- 齋藤忠, 『慶州皇南里第109號墳皇吾里第14號墳調査報告』, 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 1937.
- 鄭登元・申敬澈, 『東萊福泉洞古墳群 I』, 釜山大學校博物館, 1983.
- 朝鮮總督府, 『慶州金冠塚と其遺物』, 古蹟調査特別報告 第3冊, 1924.
- 池健吉・趙山典, 『安溪里古墳群』, 1981.
- 忠北大學校博物館, 『清州 新鳳洞 古墳群』, 1995.
- 穴澤和光・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60-4.
- 吉林省文物工作隊, 『吉林集安長川二號封土墓發掘紀要』, 『考古與文物』, 1983-1.
- 吉林省博物館文物工作隊, 『吉林集安的兩座高句麗墓』, 『考古』, 1977-2.
-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吉林輯安麻綰甸一號壁畫墓』, 『考古』, 1964-10.
- 方起東, 『吉林輯安高句麗霸王朝山城』, 『考古』, 1962-11.
- 黎搖渤, 『遼寧北票縣西關營子北燕馬素弗墓』, 『文物』, 1973-3.
- 遼寧省博物館, 『遼寧本溪晉墓』, 『考古』, 1984-8.
- 遼寧省博物館文物隊 外, 『朝陽袁台子東晉壁畫墓』, 『文物』, 1984-6.
- 于俊玉, 『朝陽三合成出土的前燕文物』, 『文物』, 1997-11.
- 張雪岩, 『吉林集安東坡高句麗墓葬發掘簡報』, 『考古』, 1991-7.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安陽孝民屯晉墓發掘報告』, 『考古』, 1983-6.
- 陳大爲, 『檀山具考古調查發掘簡報』, 『考古』, 1960-1.
-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縣兩座高句麗積石墓的清理』, 『考古』, 1979-1.

2. 史料

『삼국사기』

『삼국유사』

3. 論文

- 姜裕信, 『新羅・伽耶古墳 出土 馬具에 대한 研究 金銅製杏葉 雲珠 鏡子를 中心으로-』,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 金基雄, 『新羅古墳의 編年-積石木槨墳의 内部構造を中心として-』, 『考古學ジャーナル』9, 1972.

- 金斗喆,『三國時代 轡의 研究』,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1991.
- ,「新羅와 伽耶의 馬具」,『韓國古代史論叢』3,1992.
- ,「嶺南地方의 騎乘文化의 受容과 發展」,『伽耶古墳의 編年研究Ⅲ-甲冑와 馬具-』,第4回 嶺南考古學會學術發表會,1995.
- 金龍星,「慶山·大邱地域 三國時代 古墳의 階層化와 地域集團」,『嶺南考古學』6,1989.
- ,『大邱·慶山地域 高塚古墳의 研究』,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97.
- 金元龍,「斯盧 六村과 慶州古墳」,『歷史學報』70,1976.
- 金昌鎬,「古新羅 積石木槨墳의 400年 上限說에 대한 의문」,『嶺南考古學』4,1987.
- 金泰植,「가야사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韓國古代史論叢』2,1991.
- 盧重國,「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 變化에 대한 一考察」,『東方學志』,1981.
- 董 高,「公元三至六世紀慕容鮮卑,高句麗,朝鮮,日本馬具之比較研究」,『文物』,1995-10.
- 柳昌煥,「伽耶古墳 出土 鏡子에 대한 研究-木心鐵板被輪鏡을 中心으로」,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1994.
- 朴廣春,「伽耶土器의 分類單位 設定과 編年-陝川地域古墳 出土土器를 對象으로-」,『伽耶文化』7,伽耶文化研究院,1994.
- ,「3~4세기에 있어 伽耶土器 地域色 研究」,『韓國上古史學報』19,1995.
- ,「가야토기의 지역색 연구」,『韓國上古史學報』24,1997.
- ,「數理 型式學의 摸索」,『嶺南考古學』20,1997.
- 朴普鉉,「樹枝形立華飾冠의 系統」,『嶺南考古學』4,1987.
- ,「心葉形杏葉의 形式分布와 多樣性」,『歷史教育論集』제 13·14合輯,1990.
- ,「積石木槨墳類型의 樣相」,『嶺南考古學』10,1992.
- ,『威勢品으로본 古新羅社會의 構造』,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95.
- 裴基同,「新羅·伽耶出土鏡子考」,文理大學報 通卷29號 서울大學校,1974.
- 小林行雄,「古代の技術」,昭和37年.
- 小野山節,「日本發見の初期の馬具」,『考古學雜誌』52-1,1966.

- 申敬澈, 「古式鎧子考」, 『釜大史學』9, 1985.
- , 「伽耶의 武具와 馬具-甲冑와 鎧子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第7輯, 1989.
- , 「伽耶 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18, 1994.
- 申河東, 「新羅 骨品制의 形成過程」, 『韓國史論』(서울대)5, 1979.
- 野上丈助, 「特殊な手工業の發達」, 『日本民衆の歴史』I 所收 昭和 49年.
- 楊 泓, 「中國古代馬具的發展和對外影響」, 『文物』, 1984-9.
- 魏存成, 「高句麗馬具의 發現與研究」, 『北方文物』, 1991-4.
- 尹東錫·申瓊煥, 「伽耶지역의 鐵器와 鐵 生産工法」, 『伽耶考古學論叢』2, 1997.
- 尹世英, 「古新羅·伽耶古墳의 編年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17, 1975.
- 伊藤秋男, 「耳飾の形式學的研究に基づく韓國古新羅時代の編年に關する一試案」, 『朝鮮學報』第64輯, 1972.
- 李丙齋譯註,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 李丙燾, 「新羅의 起源問題」, 『震檀學報』8, 1937; 『韓國古代史研究』, 1976.
- 李尚律, 『嶺南地方 三國時代 杏葉의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 李盛周, 「洛東江東岸樣式에 대하여」, 『제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 요지』, 1993.
- ,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5, 1993.
- , 『新羅·伽耶社會의 起源과 成長』, 學研文化社, 1998.
- 李始永, 『韓國馬文化發達史』, 한국마사회, 1991.
- 李宇泰, 「新羅 中古期의 地方勢力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李殷昌, 「伽耶地域 土器의 研究」, 『新羅伽耶文化』2, 1970.
- 李仁淑, 「新羅와 伽耶의 裝身具」, 『韓國古代史論叢』3, 1992.
- 李鍾宣, 「古新羅古墳의 品階에 대하여」, 『韓國考古學의 半世紀』, 1995.
- ,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品階와 編年(上:王族墓)」, 『韓國考古學報』36, 1996.9.
- 李熙溶, 「慶州 皇南洞 第109號墳의 構造 再檢討」,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集』I, 1987.
- , 「慶州皇南大塚의 年代」, 『嶺南考古學』17, 1995.
- , 「경주 月城路 가 13호 積石木槨墳의 연대와 의의」, 『碩學 尹容鎮教授丁年退任祈念論集』, 1996.

- _____, 「新羅高塚의 특성과 의의」, 『嶺南考古學』20, 1997.6.
- 林南壽, 「韓日古代馬具로 본 鞍部首上利佛師의 出身背景」, 『미술사연구』 제 8호, 1994.
- 全德在, 「新羅 州郡制의 成立背景研究」, 『韓國史論』(서울대)22, 1979.
- 趙榮濟, 「新羅와 伽耶의 武器・武具」, 『韓國古代史論叢』3, 1992.
- _____, 「玉田古墳群의 階層分化에 대한 研究」, 『嶺南考古學』20, 1997.
- 朱甫墩, 「麻立干時代 新羅의 地方政治」, 『嶺南考古學』19, 1996.
- 千賀久, 「高句麗의 馬具と馬裝」, 『考古學と移住・移動』同志社大學考古學 シリーズ, 1985.
- _____, 「日本出土初期馬具の系譜」, 『榎原考古學研究所論集』9, 1988.
- 崔秉鉉, 「古新羅墳石木槨墳의 變遷과 編年」, 『韓國考古學報』10・11, 1981.
- _____, 「古新羅鈴子考」, 『崇實史學』1, 1983.
- _____,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 _____, 「新羅古墳 編年の 諸問題-慶州・月城路・福泉洞・大成洞古墳의 상대 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30, 1993.
- 崔盛洛, 「韓國考古學에 있어서 傳播論的 解釋의 檢討」, 『韓國上古史學報』19, 1995.
- 崔鍾圭, 「韓國・中期古墳の性格に對する若干の考察」, 『古代文化』12, 1984.
- _____, 「무덤에서 본 三韓社會의 構造 및 特徵」, 『韓國古代史論叢』2, 1991.
- 坂本美夫, 「馬具」, 『考古學ライブラリ』34, ニュー・サイエンス社, 1985.
- 矢澤和光, 「慶州金鈴塚考-古新羅王族の編年的序列」, 『古代文化』24-12, 1972.
- _____, 「慶州新羅古墳の編年」, 『古代學』18-2, 1972.
- 矢澤和光・馬目順一, 「北燕馬素弗墓の提起する問題」, 『考古學ジャーナル』85, 1973.

4. 附錄

- 慶州博物館, 『신라인의 무덤 新羅陵墓의 형식과 전개』, 1996.
- 東京國立博物館, 『伽耶文化展』, 朝日新聞社, 1992.
- 東亞大學校博物館, 1977.
- 東亞大學校博物館, 『伽耶遺物特別展』, 1986.